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5 (June 2016)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제 15 호 (2016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 목 차

---

<b>영국국립도서관의 한국 장서</b> .....	3
헤이미시 토드(Hamish Todd)	
영국국립도서관 동아시아 장서 팀장	
<b>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b> .....	23
희묘(에이미) 황(Hay Mew (Amy) Hwang)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동아시아학프로그램 조교 /	
귀칭 리(Guoqing Li)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 도서관 중국학 및 한국학 사서	
<b>베를린자유대학교의 한국학 장서</b> .....	36
릴리안 슈페르(Liliane Sperr)	
베를린자유대학교 캠퍼스도서관 한국학과 사서	

---

# CONTENTS

---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British Library ..... 49

Hamish Todd

Head, East Asian Collections

British Library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y ..... 71

Hay Mew (Amy) Hwang

Assistant, East Asian Studies Program

Ohio State University /

Guoqing Li

Professor, Chinese & Korean Studies Librarian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Free University Berlin ..... 84

Liliane Sperr

Librarian, Korean Department, Campus Library

Free University Berlin

---

제 15 호 (2016년 6월)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영국국립도서관의 한국 장서	/ 3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 23
베를린자유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 36



# 영국국립도서관의 한국 장서

헤이미시 토드 (Hamish Todd)

영국국립도서관  
동아시아 장서 팀장

## 1. 들어가는 말

본 글은 영국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한국어자료 장서를 소개하면서 그 역사적 개요와 장서 개발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 주요 자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영국국립도서관과 기타 동아시아 장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사진 1]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에 자리한 영국국립도서관

## 2. 영국국립도서관

### 2.1 개 요

영국국립도서관은 영국의 국립도서관으로써 1억 5천만 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도서관이다. 장서에는 책, 필사본, 지도, 신문, 연속간행물, 아카이브, 그림, 판화와 도화, 사진, 악보, 전자 및 시청각 자료, 특허, 우표, 그리고 일부 조각품과 가구, 무기류 등이 소장되어 있다. 우리 도서관의 장서는 사실상 모든 언어를 포괄하며, 상왕조의 갑골문에서부터 최신 뉴스매체에 이르기까지 3,500년에 걸쳐 있다. 그래서 서가의 총 길이가 625km에 이르고, 연간 약 3백만 점의 신규 자료들이 추가되면서 12km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독자 한 명이 하루에 5개의 자료를 본다면 전체 장서를 보기까지 8만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sup>1)</sup>

영국국립도서관은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웨일즈국립도서관, 옥스포드 보들리언 도서관, 캠브리지대학교 도서관과 함께 영국의 5개 납본 도서관 중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5개 도서관 중 우리 도서관만이 납본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판 또는 유통된 모든 자료들을 받는다. 다른 납본도서관들은 받을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2003년 이후의 납본은 또한 전자 자료 및 일부 선정된 웹사이트 등 비인쇄물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현재 1,500여 명의 정규직 및 프로젝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160여 명이 특정 언어나 주제, 자료 형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큐레이터이다.

### 2.2 영국국립도서관의 역사<sup>2)</sup>

영국국립도서관은 『1972년 영국도서관법』에 따라 영국국립박물관 도서관(British Museum Library), 중앙도서관(National Central Library), 과학기술대출도서관(National Lending Libr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영국국립서지학도서관(British National

1) 영국국립도서관 통계자료 <http://www.bl.uk/aboutus/quickinfo/facts/index.html>.

2) 자세한 정보: Philip R Harris, *A History of the British Museum Library 1753-1973* (British Library, 1998).



Bibliography)을 통합하면서 1973년 7월 1일에 개관했다. 1974년에 과학기술정보국 (Offic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이 추가되었고, 1982년에 인도사무국 도서관 및 기록물(India Office Library and Records)과 1983년에 영국기록음향연구소 (British Institute of Recorded Sound)의 병합으로 그 장서가 더욱 풍부해졌다.

한국학 장서를 포함하여 영국국립도서관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장서들의 중심에는 1753년에 설립된 영국국립박물관 도서관에서 이전된 책과 필사본들이 있다. 여기에는 초기의 저명한 골동품 전문가와 애서가들인 로버트 코튼 경(1570-1631), 한스 슬로언 경(1660-1753), 그리고 제1대 및 제2대 옥스퍼드 백작인 로버트 할리(1661-1724)와 그의 아들 에드워드(1689-1741)의 ‘기초 장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1757년에



[사진 2] 세인트 판크라스에 자리한 ‘왕의 도서관 타워’

국왕 조지 2세가 기증한 ‘구 왕정도서관’(Old Royal Library)과 조지 3세가 설립하고 그의 아들 조지 4세가 1823년에 기증한 ‘왕의 도서관’(King’s Library)이 있다. ‘왕의 도서관’은 65,000여 권의 책과 19,000점의 팜플렛을 포함하고 있으며, 6층에 달하는 ‘왕의 도서관 타워’(King’s Library Tower)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50여 년간 도서관의 장서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1850년대에는 당시 수석 사서였던 안토니 파니치 경의 주도로, 유명한 원형 열람실이 설계되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저명 인사들이 이 장관을 이루는 열람실을 이용했는데, 그 중에는 칼 마르크스와 레닌, 찰스 디킨스, 조지 버나드 쇼, 버지니아 울프 등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안전을 위해 가장 귀중한 자료들을 웨일즈국립도서관으로 대피시켰으나, 박물관 건물에 대한 독일군의 직접적인 폭격으로 250,000여 권의 책이 소실되었다.

1910년경부터 영국국립박물관은 도서관 장서들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해져서 런던의 블룸스버리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는 문제를 고려했으나 1967년에 그 아이디어는 폐기되었다. 결국 영국국립도서관의 설립에 이어서 세인트 판크라스 역 인근의 불용지를 건물 신축지로 정하게 되었다.

## 2.3 위치

오늘날 영국국립도서관은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와 요크셔의 보스턴 스파, 두 곳에 자리하고 있다.

### 2.3.1 세인트 판크라스

런던에 자리한 도서관은 20세기에 영국에서 건축된 가장 큰 공공건물로, 14층(지상 9층 지하 5층)에 총 바닥면적이 112,000 제곱미터에 달한다.<sup>3)</sup> 지하는 깊이 24.5미터로, 때로는 런던 지하철 빅토리아선의 기차들이 터널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신규 도서관의 장소에 대한 논의가 수십 년간 이어진 끝에 콜린 세인트 존 윌슨 경(1922-2007)의 설계에 따라 세인트 판크라스 건물의 공사가 1982년에 시작되었고,

---

<sup>3)</sup> 참조: Colin St J. Wils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British Library* (London: British Library, 1998).

1998년 6월 25일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식 개관하였다. 2015년 8월에 이 건물은 영국 정부로부터 1등급을 받았다.

### 2.3.2 보스턴 스파

2차 세계대전 당시 병기창이었던 곳을 재개발한 이 보스턴 스파 건물에는 - 매해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수백만 점의 문헌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문헌공급서비스(BLDSS)와 100km에 달하는 서가를 차지하는 도서관상호대차 장서들이 있다. 2009년에 개장한 고밀도 저장소의 ‘추가 보관소’(Additional Storage Building)에는 7,000,000점의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바코드가 부착된 140,000여 개의 컨테이너에 저장되어 있으며 로봇 크레인에 의해 검색된다. 2013년에는 신문보관소(Newspaper Storage Building)가 완공되어 3세기에 걸친 60,000,000부의 신문을 보관하게 되었다.



[사진 3] 보스턴 스파의 추가 보관소

## 2.4 장서의 이용

### 2.4.1 오프라인의 경우

영국국립도서관은 영국과 전세계 각지에서 온 연구자, 학자 및 학생, 경제 및 산업계,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도서관은 11개 열람실에 1,200여 명의 독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매해 약 400,000 독자들의 방문을 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1일 16,000여 명(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장서를 이용하며, 도서관의 온라인 카탈로그는 연간 6,000,000회 가량 검색된다. 도서관은 또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연간 1,600,000회의 방문을 기록한다.



[사진 4] 세인트 판크라스의 인문학 1 열람실

세인트 판크라스 건물의 전시 갤러리와 대중 공간들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열람실과 장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이 부착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출입증은 보통 3년간 유효하며 신분증과 주소를 제시하고 독자등록실(Reader Registration Office)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연간 50-60,000개의 통행증이 발급되며, 현재 125,000개의 통행증이 사용되고 있다.

## 2.4.2 온라인의 경우

영국국립도서관은 장서들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에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접근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구 및 아시아 언어로 된 역사적 필사본들 중 8,000권 이상이 ‘디지털 필사본’(Digitised Manuscripts) 페이지를 통해 디지털로 제공되고 있다.<sup>4)</sup> 주요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다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구글과 협력하여 저작권 만료된 인쇄본 250,000권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
- 2011년에 출범한 **영국 신문 아카이브**(British Newspaper Archive)는 600개가 넘는 영국 신문 표제와 14,000,000여 페이지를 담고 있다.
- **카타르 프로젝트**는 카타르재단 및 카타르국립도서관과의 10개년 협력프로젝트로서, 영국국립도서관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랍어로 된 과학 필사본과 페르시아만의 역사 기록물 1,500,000여 페이지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sup>5)</sup>
- **국제둔황프로젝트**는 영국국립도서관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기관들이 둔황과 실크로드 동부지역의 고고학 유적지들에서 발견된 모든 필사본과 그림, 직물, 유물들의 정보와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다.<sup>6)</sup>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이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협력기관으로, 이 프로젝트의 한국어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다.<sup>7)</sup>

## 3. 아시아 및 아프리카 장서

우리 도서관의 한국 자료들은 현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장서에 속해 있는 동아시아 장서의 한 부분으로 관리된다.<sup>8)</sup>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

4) 디지털 필사본 <http://www.bl.uk/manuscripts/>.

5) 카타르 디지털 도서관 <http://www.qdl.qa/en>.

6) 국제둔황프로젝트 <http://idp.bl.uk/>.

7) 국제둔황프로젝트의 한국어 웹사이트: <http://idp.korea.ac.kr/>.

8) 지난 수십여 년간 이 부서는 ‘동양 필사본 및 인쇄본(Oriental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동양 장서(Oriental Collections)’, ‘동양 및 인도국 장서(Oriental and India Office Collections)’,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장서(Asia, Pacific and African Collections)’, ‘아시아 및 아프리카학(Asian and African Studies)’ 등 여러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 아프리카 장서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의 언어와 문화]
- 국제순환프로젝트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장서  
[아랍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투르크어, 중동 기독교]
- 남아시아 장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티벳]
- 동남아시아 장서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시각예술  
[역사적인 그림, 도화, 판화, 사진, 조각 작품들]

이 장서들은 모두 합해서 500여 개의 언어를 포괄하고, 필사본 65,000권, 인쇄본 900,000권, 연속간행물과 신문 120,000부를 포함한다. 또 지도, 전자자료, 판화, 도화, 사진, 조각품, 가구를 포함하여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5]  
아시아 및  
아프리카학 열람실

### 3.1 동아시아 장서

동아시아 관련 자료는 영국국립박물관 도서관 초창기부터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슬로언과 할리 장서들에 중국어 및 일본어뿐 아니라 기타 중동 및 아시아 언어들로 된 서적과 필사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도서관의 동아시아 장서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고/만주**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이 더 적기는 하지만, 오키나와, 탕구트, 나시 등의 언어로 된 자료들도 있다. 다른 동아시아 장서들을 간략히 소개한 후, 한국학 장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3.1.1 중국 장서**는 인쇄본 100,000권과 필사본 20,000권을 포함한다(스타인의 둔황 자료 포함). 가장 귀중한 자료로는 출판 일자가 표기된 책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실제로는 두루마리)으로 간기(서기 868년)가 표기된 금강경(金剛經), 3,000년 전 상왕조 시대에 점을 치는 데 사용된 갑골 450점, 명왕조 시대의 유명한 백과사전인 영락대전(永樂大典) 24권이 있다.

**3.1.2 일본 장서**는 인쇄본 80,000여 권과 필사본 500권, 연속간행물과 정부간행물 6,00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서자료(즉, 1868년 이전)로는 인쇄본 4,000권, 필사본 400권, 프린트 500점이 있다. 가장 오래된 자료로는 서기 700-764년에 인쇄된 백만탑다라니(百萬塔陀羅尼)가 있다. 1592-1593년에 아마쿠사의 예수회 선교출판사가 로마체 일본어로 인쇄한 헤이케 이야기, 이슥우화, 킨쿠슈의 유일한 사본들을 포함하여, 가동 활자로 인쇄된 초기 작품 120점이 있다.



[사진 6] 청어노걸대(清語老乞大). 만주어-한글 회화집, 1765. BL: 19951.c.44

3.1.3 몽골 장서는 인쇄자료 2,000여 점, 목판화 및 필사본 90점을 포함하며, 주로 불교 경전과 종교적인 작품들이다. 만주 장서는 필사본 36점, 목판화 226점, 인쇄본 4000여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 몽골어 및 동족 만주어를 포함하는 두 장서의 기록물들이 2년에 걸친 역변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라인 목록에 추가되었다.

이 장서에서 한 가지 독특한 자료는 청나라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1765년에 발행된 한글/만주어 회화집 ‘청어노걸대’(清語老乞大)이다.

### 3.2 직원

정기 프로젝트 근무자들을 포함하여 현재 약 50명의 직원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장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아시아팀에는 총 5명이 근무하는데, 동아시아 장서 팀장 겸



한국/일본 장서 관리자, 일본 장서 큐레이터, 중국 장서 수석 큐레이터, 중국 장서 큐레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 역변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몽골/만주 장서 전문가가 있다.

#### 4. 한국 장서



[사진 7] 문자도, 19세기. BL: Or.14794

##### 4.1 규모

영국국립도서관의 한국어 자료는 남한과 북한의 단행본 15,000여 권과 연속간행물 500여 권, 정부간행물과 신문 300여 부로 구성되어 현재 계속 수집되고 있다. 고서 자료는 1910년 이전에 인쇄된 작품 180점과 필사본 70점이 있다.<sup>9)</sup>

<sup>9)</su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국립도서관 웹사이트의 한국학 장서 페이지 참조: <http://www.bl.uk/collection-guides/korean-collection>.

## 4.2 한국 장서의 개발

### 4.2.1 초창기의 수집<sup>10)</sup>

중국 및 일본 자료들이 1753년 영국국립도서관 설립 당시부터 존재했던 반면, 첫 한국 자료는 한글로 된 주기도문 필사본으로 1843년에 수집되었다.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서구의 도서관에 한국의 서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진 8] 어니스트 M. 사토우

영국국립박물관이 처음으로 다량 입수한 한국어 서적들은 외교관이자 애서가인 **어니스트 메이슨 사토우 경(1843-1929)**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300파운드를 주고 구입한 938책의 서적(대부분 일본서) 중 26책이 한국 서적이었다. 이듬해에 사토우 경은 106종

<sup>10)</sup> 한국학 장서의 역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한다. Elizabeth McKillop, 'Early Printed Books from Korea in the British Library' in *Daiei Toshokan shozō Chōsenbon oyobi Nihon kosho no bunkengakuteki, gogakuteki kenkyū* 『大英圖書館所藏朝鮮本目錄及び日本古書の文獻學的・語學的研究』 (Toyama University, 2007).

640책 중 한국 자료 21종을 더 기증했다.<sup>11)</sup>

사토우 경은 주일 영국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했는데, 1862-1883년에는 일본 서기관과 부서기관을 역임했고, 1895-1900년에는 전권 공사를 역임했다. 1900-1906년에는 중국에서 전권 공사로 부임했다. 사토우 경은 외교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역사 및 문화의 포괄적인 학문들을 연구하면서 60년에 걸쳐 16권의 저서와 76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과는 일본과 한국 서지학, 특히 일본과 한국의 인쇄사에 대한 연구로<sup>12)</sup>, 그가 수집한 한국의 가동 활자와 목판 인쇄 초기 자료들은 현재 영국국립도서관의 장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884년에 영국과 한국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서구 여행자들과 외교관, 선교사 등을 통해 한국 자료들이 보다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유입되었다. 영국국립도서관 아카이브를 보면 1884-1885년에 사토우 경의 자료를 취득한 이후 1889년, 1894년, 1897년, 1900년, 1902년, 1906년, 1909년, 1910년, 1913년에 한국의 인쇄본과 필사본들이 수집된 것을 알 수 있다.

1906년에 영국국립박물관은 1863년에 주중 영국 영사관에서 근무한 아일랜드인 토마스 워터스(1840-1901)의 도서관을 구입했다. 그는 북경과 대만에서 근무한 후, 1887-1888년에 서울에서 영사 대행으로 근무한 다음, 1895년 퇴임할 때까지 광저우에서 영사로 근무했다. 그는 중국 불교에 대해 폭넓게 글을 썼고, 1906년에 수집된 850권의 서적 중 대부분이 중국서였으나 상당량의 한국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

11) 사토우와 그의 장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한다. Hamish Todd, 'The Satow Collection of Japanese Books in the British Library: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in *Daiei Toshokan shozō Chōsenbon oyobi Nihon kosho no bunkengakuteki, gogakuteki kenkyū* 大英図書館所藏朝鮮本及び日本古書の文献学的・語学的研究, ed. by Yukio Fujimoto (Toyama: Toyama Daigaku, 2007).

12) Ernest M Satow, 'On the History of Early Printing in Japan' 및 'Further Notes on Movable Types in Korea and Early Japanese Printed Book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1882.



[사진 9] 호머 B. 헐버트

한국 장서의 발전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사는 미국인인 **호머 베잘릴 헐버트** (1863-1949)이다. 그는 1886-1907년에 한국에 살면서 황실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이후 그는 한일합병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로 인해 1907년에 일본 총독부에 의해 추방되었다. 헐버트는 1900년에 인쇄본 9종 35책, 필사본 3종 14책, 한반도 지도 1점과 천문도 1점, 그리고 1907년에 235부로 구성된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등, 정기적으로 영국국립박물관에 책과 필사본을 팔았다.

초창기 한국 자료 수집의 마지막은 1909년과 1913년에 스탠리 스틸리가 처가쪽 삼촌인 **알프레드 버트 스트라이플링**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 서적 2권을 영국국립 박물관이 산 것이다. 1838년에 콘월에서 출생한 스트라이플링은 수년 간 상하이 시경에서 근무했고 1896년에 대한제국 경찰의 자문관이 되었다. 그는 1904년에 사망했고 그의 유해는 서울에 안치되었다.

#### 4.2.2 장서 개발 현황

두 세계대전 사이 비교적 활동이 저조했던 시기가 지난 후, 1960년대 들어 한국 장서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 자료는 구매, 교환, 기증에 의해 수집되고 있다.

근대의 장서들은 문학과 언어, 역사, 철학, 고고학, 예술, 참고 자료, 지리적 문헌 분야가 많다. 1955년 이후 북한 간행물들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이 1,000여 권에 달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그리고 한국 내 기타 협력기관들과의 교류협정으로 상당량의 정부간행물과 회색문헌의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한국 장서 내의 한국어 자료에 더하여, 영국국립도서관은 영어와 기타 유럽 및 아시아어로 쓰인 한국 관련 자료들도 수집하고 있다. 일례로, 서구 언어들로 된 자료가 20,000여 점 소장되어 있다. 추가로 지도 장서에는 450점의 한국 지도가 있고, 음향 아카이브에는 700점의 한국 음향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 4.3 한국 장서의 주요 자료

한국 장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도세자(1735-1762)의 부인이자 순조(1790-1834)의 조모인 혜경궁 홍씨(1735-1815)를 기리는 의식을 상세한 그림과 함께 기록한 1809년 왕실의 기념 필사본 ‘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Or.7458)이다.

영국국립박물관이 1891년에 구입한 이 필사본은 디지털화되어 현재 영국국립도서관의 디지털 필사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sup>13)</sup>



[사진 10]

왕실 필사본, 1809. BL: Or.7458

<sup>13)</sup> [http://www.bl.uk/manuscripts/FullDisplay.aspx?index=0&ref=Or\\_7458](http://www.bl.uk/manuscripts/FullDisplay.aspx?index=0&ref=Or_7458)

그 외에 눈에 띄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여러 지방들을 보여주는, 궁중이 후원한 지도책과 김정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여러 사본들, 1898년으로 표기된 두루마리 형식의 대한전지도(大韓全地圖)를 포함하여 필사본 지도 및 지도책 20점이 있다.
- 한글로 인쇄된 19세기 중반의 소설 35권.
- 삼화가 있는 필사본으로, 시와 풍경화를 담은 18세기 화첩 ‘옥계화’(玉溪社)
- 중국의 유교 예법을 전파하기 위해 조선 초기에 왕실이 편찬한 15-16세기 유교 문헌들이 있다. 이윤행실도(二倫行實圖),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및 관련 작품들은 원 중국어에 한글 해석을 덧붙였으며, 1446년에 반포된 한글을 사용하여 인쇄된 초기 서적 중 하나이다.
- 1420년의 경자와 1434년에 처음 사용된 가빈자와 같은 주요 활자 등 가동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초기 작품 50점.



[사진 11] 춘추경전집해(春秋經傳集解). 춘추좌전에 대한 제가의 학설을 정리한 책으로, 가빈자 가동 활자를 이용하여 1434년에 인쇄됨. BL: 16015.c.3

- 두루마리 걸개 형태로 유교적 가치를 묘사한 19세기 서화 ‘문자도’ 5점.
- 19세기 과거 시험지 ‘식원’. 수험자의 이름과 신원을 나타내는 도장이 찍혀 있음.
- 동아시아 전통치료법에서 중시하는 경락을 보여주는 침술 도표.
- 19세기 후반의 화가 기산 김준근이 당시 직업과 생활상을 묘사한 풍속화 100점.
- 문호 개방 이전 조선의 귀중한 역사적, 정치적 기록물인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19세기 초 필사본.

## 4.4 장서의 관리

### 4.4.1 장소

한국 장서는 별도로 보관되지 않고 그 희귀성, 형태, 크기에 따라 다른 장서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다. 필사본과 희귀한 인쇄본은 세인트 판크라스 건물에 있는 보안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동양’ 필사본은 취득일에 따라 서가 기호가 부여되어 일련의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국 자료들은 다른 언어로 된 자료들과 혼합되어 있다.

우리 도서관은 1950년대까지 한국 자료들을 인지하고 기술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수집된 한국 귀중자료들은 중국 자료로 종종 오인되어 중국서들과 함께 보관되었다(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보관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많은 자료들에 대해 목록화와 속성 부여 작업을 다시 한 결과, 오류가 있는 일부 속성 자료들이 간혹 나타나기는 하지만, 한국 자료들은 이제 중국 및 일본 자료들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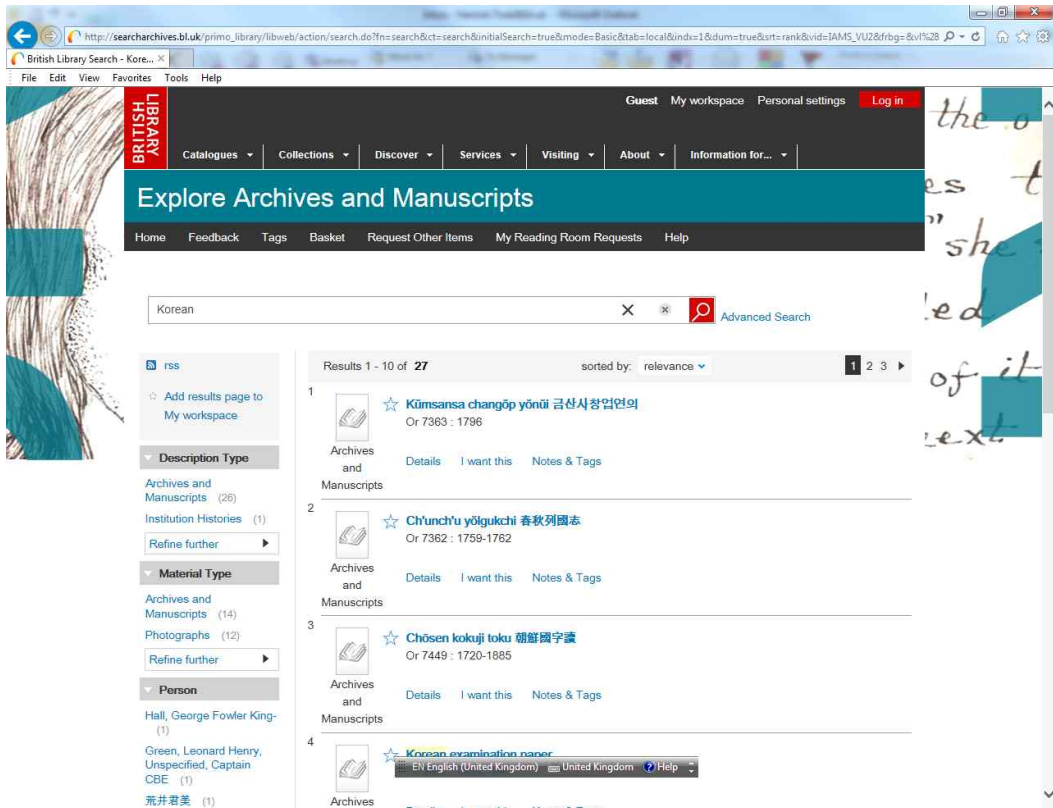
한글로 된 근대 인쇄자료들도 취득년과 크기에 따라 부여된 일련의 서가 기호에 의해 다른 언어들과 혼합되어 있다. 이 자료는 현재 보스턴 스파에 있는 추가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48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열람실로 운반된다.

### 4.4.2 목록

역사적으로, 한국어 자료의 서지 정보는 저자, 표제, 주제 순으로 구성된 카드 목록에 기록되었다. 1994년 이후부터 한국 인쇄자료의 기록이 우리 도서관의 자동화 목록에 추가되었고, 현재 목록 카드의 역변환이 거의 완료되었다. 이 기록들은 도서관의 메인

온라인 목록인 *Explore the British Library*(*영국국립도서관 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다.<sup>14)</sup> 기록은 매순-라이샤워 표기법을 이용하여 로마자화되었으며, 보다 최근 기록들은 한글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필사본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목록 *Explore Archives and Manuscripts*(*아카이브 및 필사본 검색*)에서 찾을 수 있다.<sup>15)</sup>



[사진 12] 온라인 필사본 목록의 인터페이스

14) <http://explore.bl.uk>.

15) <http://searcharchives.bl.uk/>.



#### 4.4.3 직원

수년 간 한국 장서는 중국 담당 직원이 관리했다. 1980년대 초기부터 2004년까지 한국 장서는 그 개발과 관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엘리자베스 맥킬럽이 관리했다. 맥킬럽은 처음에는 중국 담당 큐레이터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 큐레이터로서 그 역사와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초기의 한국 자료들을 구분하여 목록화했고 일련의 논문과 강의를 통해 한국 장서의 인지도를 높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맥킬럽은 한국 고서 서지학의 전문가인 토야마대학교의 유키오 후지모토 교수와 3개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영국국립도서관의 초기 한국 서적들을 목록화했다. 맥킬럽의 후임으로 일본 담당 책임자인 해미쉬 토드가 왔고, 새 역할에 맞게 직함이 ‘일본 및 한국 장서 수석 큐레이터’로 변경되었다. 2014년에 아시아부서가 재정비되면서 토드는 동아시아 장서 팀장으로 임명되었고 계속해서 한국 장서를 관리하고 있다.

## ■ 참고 문헌

---

Philip R. **Harris**, *A History of the British Museum Library 1753-1973* (London: British Library, 1998).

Anthony **Kenny**, Sir, *The British Library and the St Pancras building* / Sir Anthony Kenny (London: British Library, 1994)

Yukio **Fujimoto** and Elizabeth D. **McKillop**, 'Korean Books at the British Library' in *Chosen Gakuho: Journal of the Academic Association of Koreanology in Japan*. No. 216 (July 2010).

Elizabeth D. **McKillop**, 'Early Printed Books from Korea in the British Library' in *Daiei Toshokan shozō Chōsenbon oyobi Nihon koshō no bunkengakuteki, gogakuteki kenkyū* 「大英圖書館所藏朝鮮本目錄及び日本古書の文獻學的・語學的研究」 (Toyama: Toyama University, 2007).

Elizabeth D. **McKillop**, 'Korean Holdings in the British Library' in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Vol. 85 (1988).

Hamish A. **Todd**, 'The Satow Collection of Japanese Books in the British Library: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in *Daiei Toshokan shozō Chōsenbon oyobi Nihon koshō no bunkengakuteki, gogakuteki kenkyū* 大英圖書館所藏朝鮮本及び日本古書の文獻學的・語學的研究, ed. by Yukio Fujimoto (Toyama: Toyama Daigaku, 2007).

Colin St J. **Wils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British Library* (London: British Library, 1998)

영국국립도서관 웹사이트:

영국국립도서관 통계: <http://www.bl.uk/aboutus/quickinfo/facts/index.html>

인쇄본 목록: <http://explore.bl.uk>

필사본 목록: <http://searcharchives.bl.uk/>.

동아시아 장서: <http://www.bl.uk/subjects/east-asia>

한국 장서: <http://www.bl.uk/collection-guides/korean-collection>

디지털 필사본: <http://www.bl.uk/manuscripts/>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희묘(에이미) 황 (Hay Mew (Amy) Hwang) /  
귀칭 리 (Guoqing Li)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동아시아학 프로그램 조교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 도서관 중국학 및 한국학 사서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소개

흔히 ‘오하이오 스테이트’(Ohio State) 또는 OSU라고 불리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자리한 공립연구대학교이다. 1870년 설립 당시에는 오하이오 농업기계대학(Ohio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으로 불렸다. 1878년에 오하이오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하이오주립대학교”로 개명되었다. 그때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 캠퍼스가 되었다.

2014년 현재 우리 대학에 등록한 학부생은 약 51,200명, 대학원생은 10,400명이다. 이 중 6,178명이 외국인 학생으로, 한국 학생은 중국 및 인도 학생에 이어 외국인 학생 중 세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sup>1)</sup> “Highlights Of Fifteenth Day Enrollment,” *The Ohio State University Enrollment Services – Analysis And Reporting*, 2015년 8월 20일 접속 [http://oesar.osu.edu/pdf/student\\_enrollment/15th/enrollment/15THDAY\\_AUTUMN\\_2014.pdf](http://oesar.osu.edu/pdf/student_enrollment/15th/enrollment/15THDAY_AUTUMN_2014.pdf).



[그림 1]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본 캠퍼스의 중심인 ‘더 오벌’(The Oval)의 항공사진<sup>2)</sup>

## 동아시아학센터(EASC)

동아시아학센터는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오하이오주와 미국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동아시아학 분야의 독창적인 사고와 행동을 증진하는 기폭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학센터는 고유한 전문성과 국내외의 폭넓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에서의 동아시아 역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척하고 있다.

2014년에 센터는 미국 교육부의 국립리소스센터(NRC) 제6조와 외국어 및 지역학 (FLAS) 펠로우십 프로그램 하에서 2개의 중요한 기금을 확보했다. 2014-2018년도 동안 이 기금은 총 230만 달러에 달한다.

---

2)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한, 모든 이미지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유니버시티 커뮤니케이션스(University Communications)가 제공한 것이다(<http://ucom.osu.edu/photo-gallery/>)

동아시아학센터는 대학 도서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종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대학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만화 컨퍼런스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 한국학연구소(Institute for Korean Studies)

동아시아학센터는 세 개의 부속 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학연구소(IKS)이다. 한국학연구소는 2005년 한국학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고, 2011년에 학술 협력과 교류를 위해 한국학 프로그램을 통일하고 강화시키고자 한국학연구소가 공식 설립되었다.

“한국학연구소의 사명은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한국학 연구를 발전시키며,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학술 및 행정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학연구소는 한국인과 한국의 언어, 예술, 문화, 역사, 환경, 정부와 정치, 경제와 기업, 기타 사회적 측면 등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한국학연구소는 유치원/초등학교 교육, 기업, 지역사회, 주, 국가를 위한 대외활동을 포함한 연구와 교육 및 전문 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국학 연구의 국내외적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한국학연구소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함으로써 오하이오주와 전세계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사명을 지지한다.”<sup>3)</sup>

한국학연구소는 냉전시대와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춰 미국 내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을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며, 해마다 동아시아 안보에 관한 강의 시리즈를 운영한다. 한국학연구소는 또한 - 많은 ‘Big 10 대학교들’(Big Ten Universities)이 공유하는 - 한국에 관한 온라인 강의 시리즈의 개발을 지원한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sup>3)</sup>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Center*, 2015년 8월 19일 접속. <https://easc.osu.edu/iks>.

##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는 미국 내의 동종 프로그램 중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에 속한다.<sup>4)</sup> 이 학과는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학 학사과정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 분야의 학사와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한 다양한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 단계로 구성된 한국어 강의 외에도, 교수진은 한국문화의 소개에서부터 문학 번역, 언어학과 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친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 중 하나는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드라마, 음악 공연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약 50명의 학생들이 한국학 전공으로 학사 과정에 등록되어 있으며, 15명 정도가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는 또 서울의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그리고 아산의 순천향대학교 등 한국 내 여러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OSUL)은 콜럼버스 캠퍼스 내 총 13개 도서관으로 이루어지며, 뉴워크와 메리온 등 지역 캠퍼스에도 추가 도서관들이 있다.

미국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는 연간 통계로 지출, 직원 규모, 장서 관련 데이터 등을 포함한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그 회원 도서관들의 순위를 발표한다. 2013-2014년도 조사에서 OSUL은 도서관 총지출 부문에서 연구도서관협회의 115개 회원 도서관 중 14위, 공립대학교 중 6위를 차지했다. 2013-2014년도에 OSUL의 총 지출은 4,800만 달러로, 그 중 장서 예산이 1,890만 달러에 달했다.<sup>5)</sup>

---

4) "About U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2015년 8월 19일 접속. <https://deall.osu.edu/about-us>.

5) "ARL Statistics,"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15년 8월 21일 접속. <http://www.arlstatistics.org/analytics>.

OSUL은 6백만 개의 표제 또는 890만 책(인쇄본 및 전자본)을 장서로 보유하고 있다.<sup>6)</sup> 2012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가 소장자료 수를 바탕으로 선정한 미국 내 상위 100대 도서관에서 28위를 차지했다.<sup>7)</sup>

OSUL의 직원은 총 313명<sup>8)</sup>으로, 151명의 전문 직원과 162명의 지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은 또한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고용하는데, 이들의 근무시간은 거의 전일근무직원 370명의 시간(370 FTE, 전일제 환산기준)과 맞먹는다.<sup>9)</sup>

OSUL은 오하이오주 주립도서관과 오하이오주 내 88개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도서관으로 구성된 오하이오링크(OhioLink)의 창립회원이다. 오하이오링크는 회원 도서관들 간에 자유롭게 자료를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OSUL은 또 ‘Big 10 대학교’의 컨소시엄인 기관협력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 동아시아학 장서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도서관은 1952년부터 1971년까지 루이스 C. 브랜스콤 주니어 박사의 재임 기간 동안 동아시아 장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sup>10)</sup> 별도의 동아시아 장서를 수립한다는 아이디어는 1963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바로 실행되지 못했고, 1964년이 되어서야 웬-유 엔이 첫 동아시아 사서로 채용되었다.<sup>11)</sup> 그러나 동아시아 언어 자료나 동아시아학 관련 자료의 수집은 동아시아 장서가 공식적으로

---

6) “ARL Statistics for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Libraries*. 2015년 8월 21일 접속. <http://library.osu.edu/about/departments/assessment/data-portal/arl-statistics-for-ohio-state-university-libraries/>.

7) “The Nation's Largest Libraries: A Listing By Volumes Hel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2년 10월에 수정됨. <http://www.ala.org/tools/libfactsheets/alalibraryfactsheet22>.

8) 직원 수는 FTE(전일제 환산기준)로 계산함.

9) “ARL Statistics for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Libraries*. 2015년 8월 21일 접속. <http://library.osu.edu/about/departments/assessment/data-portal/arl-statistics-for-ohio-state-university-libraries/>.

10) Donovan, Maureen, “Time and Change: Reflections o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Library Collection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7년 10월 18-20일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개최된 ‘100년간의 장서 수집: 북미지역 동아시아학 장서의 역사’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

11) 10)과 동일.

설립되기 훨씬 전에,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첫 대학 사서로 고용된 두 명의 사서가 재임하는 기간에 시작되었다.<sup>12)</sup>

## 한국학 장서

### 수서 계획과 개발:

1987년 이전까지는 동아시아 사서가 한국어 자료들을 담당했다. 1987년에 중국학 및 한국학 사서라는 직위가 마련되었고, 카멘 리가 채용되었다.<sup>13)</sup> 1988년 OSUL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학 장서는 1,075권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때 이후 한국학 장서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8,500여 권과 시청각 자료 및 미술작품 196점, 마이크로폼 115매를 보유하고 있다.<sup>14)</sup>

표 1은 2004년~2014년 간 우리 장서의 증가 현황을 보여준다.<sup>15)</sup>

〈표 1〉 한국학 장서의 규모(2004-2014)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장 물리적 자료수(권)	4,506	4,864	4,971	6,806	5,325	6,537	6,678	7,512	8,024	8,548	8,571
해당 연도에 추가된 물리적 자료수(총계)	362	358	107	1,836	500	1334	141	834	512	524	192

한국학 장서는 2007년에 1,800권 이상 추가되면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또 점점 더 많은 저널과 단행본이 온라인에서 이용되거나 전자책으로 출판되면서 물리적 장서에 추가되는 자료의 수가 감소했다.

한국학 장서의 수서 계획은 언어와 문학을 중요시하며<sup>16)</sup>, 우리의 물리적 장서에

12) 10)과 동일.

13) 10)과 동일.

14)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13-2014,"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15년 8월 19일 접속. <http://ceal.lib.ku.edu/ceal/>.

15) 14)와 동일.



포함된 표제의 47% 가량이 이 범주에 속한다.<sup>17)</sup> 언어 및 문학 범주 안에서는 표제의 약 19%가 언어 및 언어 연구에 속하고<sup>18)</sup> 78%는 한국문학 표제이다.<sup>19)</sup> 기타 주요 분야로는 철학, 역사, 사회학, 미술 등이 있다.

2007년과 2015년에 실시된 장서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숫자 면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범주는 언어와 문학 범주이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는 역사 범주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sup>20)</sup> 2007년에는 표제의 1%만이 역사 범주였으나, 2015년에는 그 비율이 장서의 21%에 달했다.

## 장소

한국학 장서의 절반 가량이 우리 대학의 윌리엄 옥슬리 톰슨 기념도서관(일명 톰슨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톰슨 도서관은 우리 대학의 콜럼버스 캠퍼스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한국학 자료는 또한 건축도서관, 미술도서관, 빌리 아일랜드 카툰 도서관 및 박물관, 그리고 OSUL의 교외 보관시설인 북디포지터리(Book Depository)에도 보관되어 있다.

톰슨도서관 내에서 한국학 장서는 대부분 3층 메자닌에 소장되어 있다. 이 층은 동아시아 언어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다. 또 인기있는 한국 저널 19편의 최신 호들은 이용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동아시아학 최신저널 열람실에 꽂혀 있다.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참고자료는 2층 대열람실이나 대열람실 밖 복도에 자리하고 있다. 희귀본 또는 특별장서로 지정된 한국 서적들은 비대출 도서로, 톰슨도서관의 잭 앤 켄 크레이튼 특별장서 열람실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16) 의회도서관 분류 등급 P

17)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모든 데이터는 2015년 8월에 실시된 장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다.

18) 의회도서관 분류 PL 901 - PL 949

19) 의회도서관 분류 PL 950 - PL 998

20) 의회도서관 분류 등급 D



[그림 2] 윌리엄 옥슬리 톰슨 기념도서관



[그림 3] 톰슨도서관 대열람실

## 이용

한국학 장서는 강의, 연구, 여가 독서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우리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서만 3,052건의 페이지뷰와 697건의 논문 다운로드가 기록되었다. 회계연도 2015년에 OSUL은 타 대학들로부터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137건의 한국어 자료 대출 요청을 받았다. 또한 한국학 장서의 자료들은 오하이오링크 서비스를 통해 오하이오주 내의 다른 도서관들에 대여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우리 장서의 선정된 자료들은 구글의 도서 스캔 프로젝트를 위해 제공되었다.

이용자들의 욕구와 장서의 현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료에 대한 대출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데이터는 장서 개발 전략에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일례로, 2014년 가을 학기에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위 대출 자료에 올랐다. 초급과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책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블로그 조회 수에서도 드러났다. 그 결과로 초급 및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책 80권을 새로 구입하였고, 학생들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이 책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Korean Extensive Reading”(한국어 폭넓은 독서)<sup>21)</sup> 리브가이드(Libguide)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 학생 및 교수진과의 소통

학술도서관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과거에는 목록이 도서관 이용자와 장서를 연결하는 주된 도구였다. 그러나 도서관 목록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늘날, 목록은 도서관 장서의 이용이 저조하거나 하락하고, 세련되고 강력한 정보 검색 도구들이 출현하고, 정보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대규모 디지털화

---

<sup>21)</sup> <http://guides.osu.edu/KoreanReading>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학술 정보 교류의 혁명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작동하고 있다. 도서관 장서들이 가치 있다고 전제한다면, 도서관의 리더들은 모든 유형의 온라인 정보 검색 시스템의 틀 안에서 목록을 정착시키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sup>22)</sup>

아직까지는 OSUL 목록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된 도구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른 도구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국학 장서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동아시아학센터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최신 근황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 장서 블로그<sup>23)</sup>는 일반적으로 주당 1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월 평균 150건의 뷰를 기록하고 있다. 블로그 게시물의 주제는 새소식에서부터 특정 자료의 소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 블로그 시리즈 중 하나인 “From our Shelves”(우리의 서가 소개)는 컬렉션에 소장된 책이나 영화들을 소개한다. 각 게시물은 해당 자료를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와 연구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블로그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용자들의 관심사와 욕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조회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서비스와 장서를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한국학 장서는 OSUL 도서관의 메인 도메인 하에 장서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 몇 개의 하위 페이지들로 구성된 이 웹사이트는 장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한다. 하위 페이지 중 하나는 “New to the Collections”(신간 자료)<sup>24)</sup> 목록으로, 대체로 월 1회 갱신된다. 이 페이지는 해당 월에 장서에 추가된 모든 자료를 소개한다. 자료 표제가 청구기호 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목록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 이 목록은 또한 이용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다면 목록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링크를 제공한다.

---

22) Calhoun, Karen, *The changing nature of the catalogue and its integration with other discovery tool*, Library of Congress, 2006, 2015년 8월 21일 접속 <http://www.loc.gov/catdir/calhoun-report-final.pdf>.

23) <http://library.osu.edu/blogs/koreancollections/>

24) <https://library.osu.edu/find/collections/korean-studies-collections/new-to-the-collections/>

또 다른 하위 페이지인 “Top Circulating Items”(인기 대출 자료)<sup>25)</sup>는 지난 학기에 OSUL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어 자료들을 소개한다. 매 학기마다 장서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 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정량화된 동향을 얻는다.

장서 웹사이트 및 블로그에 더하여, 리브가이드(Libguide)도 OSUL이 이용하는 도구이다. 리브가이드는 여러 도서관이 이용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OSUL은 주로 과목이나 강의, 주제 가이드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다. 한국학 장서는 “Korean Extensive Reading”(한국어 폭넓은 독서) 리브가이드와 “Korean Studies Resources”(한국학 자료) 리브가이드를 포함하여 몇 가지 리브가이드 웹페이지를 개발했다.<sup>26)</sup>

OSUL의 리브가이드 페이지 중 다수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강의 관리 시스템인 카르멘(Carmen)에 연결되어 있다. 이로써 학생들은 한 번의 클릭으로 그들의 강의를 위해 개발된 리브가이드 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 결론

지난 수십년 간 OSUL의 한국학 장서가 크게 발전하기는 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미국 내의 다른 외국어 장서들이 공통으로 고심하는 많은 도전들을 안고 있다. 도서관의 전반적인 이용자 수와 비교해볼 때 한국학 장서 이용자의 수는 적은 편이다. 이용 통계 하나만 조사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지표를 사용해서는 장서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sup>27)</sup>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막 한국어를 익히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이용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장서는 또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연구 주제가 매우 다양한 이용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반 장서와 희귀하고 특수한 자료 장서의 개발 간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

25) <https://library.osu.edu/find/collections/korean-studies-collections/top-circulating-items/>

26) <http://guides.osu.edu/korean>

27) Hazen, Dan, “Area Studies Librarianship and Interdisciplinarity: Globalization, the Long Tail, and the Cloud,” in *Interdisciplinarity and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Daniel C. Mack, Craig Gibson,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2), 126.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강점 중 하나는 아마도 동아시아학센터와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 학과의 학생 및 교수진과의 돈독한 관계일 것이다. 대학 전체의 이용자와 비교해보면 우리 장서를 이용하는 학생과 교수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장서를 담당하는 사서들에 비해 우리 이용자와 좀 더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편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연구 동향과 커리큘럼 변화를 보다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About U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2015년 8월 19일 접속.  
<https://deall.osu.edu/about-us>.
- “ARL Statistics.”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15년 8월 21일 접속.  
<http://www.arlstatistics.org/analytics>.
- “ARL Statistics for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2015년 8월 21일 접속. <http://library.osu.edu/about/departments/assessment/data-portal/arl-statistics-for-ohio-state-university-libraries/>.
- Calhoun, Karen. The changing nature of the catalogue and its integration with other discovery tool. Library of Congress, 2006. 2015년 8월 21일 접속.  
<http://www.loc.gov/catdir/calhoun-report-final.pdf>.
-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13-2014.”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15년 8월 19일 접속. <http://ceal.lib.ku.edu/ceal/>.
- Donovan, Maureen. “Time and Change: Reflections o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Library Collection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7년 10월 18-20일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개최된 컨퍼런스 “Over a Hundred Years of Collecting: The History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에서 발표한 논문.
- Hazen, Dan. “Area Studies Librarianship and Interdisciplinarity: Globalization, the Long Tail, and the Cloud.” In *Interdisciplinarity and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Daniel C. Mack, Craig Gibson, 115-129.(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2.
- “Highlights Of Fifteenth Day Enrollment.” The Ohio State University Enrollment Services-Analysis And Reporting. 2015년 8월 20일 접속. [http://oesar.osu.edu/pdf/student\\_enrollment/15th/enrollment/15THDAY\\_AUTUMN\\_2014.pdf](http://oesar.osu.edu/pdf/student_enrollment/15th/enrollment/15THDAY_AUTUMN_2014.pdf).
-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Center. 2015년 8월 19일 접속.  
<https://easc.osu.edu/iiks>.
- “The Nation’s Largest Libraries: A Listing By Volumes Hel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2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됨. <http://www.ala.org/tools/libfactsheets/alalibraryfactsheet22>.

# 베를린자유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릴리안 슈페르 (Liliane Sperr)

베를린자유대학교 캠퍼스도서관

한국학과 사서

## 1. 베를린자유대학교와 동아시아학 연구회의 소개



\* 출처: 베를린자유대학교

- 이름 - Freie Universität zu Berlin  
베를린자유대학교
- 웹 사이트 - <http://www.fu-berlin.de/>
- 위치 - 독일 베를린 시
- 설립 연도 - 1948년
- 학과 수 - 12개 학과
- 학생 수 - 32,800명

진리, 정의, 자유 - 베를린자유대학교의 직인에 라틴어로 새겨져 있는 이 세 단어는 1948년 서베를린에 미국 연합군 및 정치가들의 후원으로 학생과 학자, 과학자들이 처음 학교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우리 대학의 학풍을 규정하는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학교는 비교적 역사가 짧지만 20세기 초부터 연구와 학문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베를린 남서쪽의 달렘 지구에 자리하고 있어 오랜 학문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7년에 우리 대학은 독일연방정부의 ‘엑셀런스 이니셔티브’(Excellence Initiative)에 의해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사진 1] 2006년 이후 한국학연구소,  
Fabeckstr. 7

베를린자유대학교의 첫 동아시아학 연구회, 즉 중국학과는 1956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2년 후에 일본학과가 신설되었다. 1964년부터 일본학과 내에서 한국어 강의들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한스-위르겐 자보로우스키 박사가 강사로 임명되어 문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그러나 한국학은 2003년에야 비로소 역사 및 문화학과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자보로우스키 박사가 퇴임한 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홀머 브로호로스 박사가 한국학 연구소장 대행을 맡았고 첫 정규 한국학 학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이은정 박사가 교수직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한국학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민주화와 통일 문제가 특히 중시된다. 현재의 커리큘럼은 한국어 강의들 외에 한국 문화와 사회, 역사, 정치, 경제에 관한 강의들로 구성된다.



[사진 2] 동아시아학 대학원 \* 사진 출처: Bernd Wannemacher

2013년에는 동아시아학 대학원이 연방정부의 엑셀런스 이니셔티브 하에서 설립되었다. 이 대학원은 한국, 일본, 중국 관련 연구자들에게 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을 제공한다. 동아시아학 대학원에는 세 명의 조교수가 있는데, 한국학은 한스 B. 모슬러 박사가 담당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학교는 330여 개의 대학교육협정을 맺고 있는 네트워킹 대학으로서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5개 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 2. 캠퍼스 도서관의 한국학 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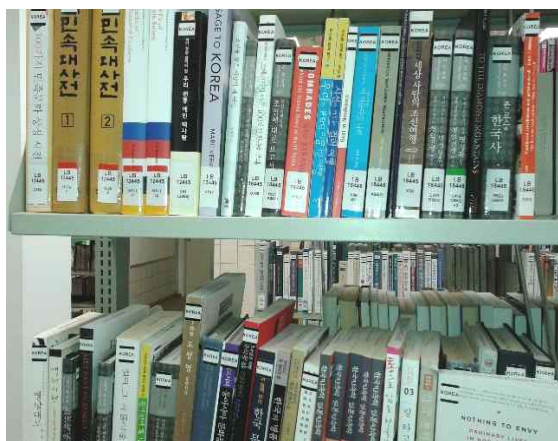
[사진 3] “캠퍼스도서관”(Campusbibliothek)의 한국 장서

한국학 장서는 책 18,500여 권, 영화 870편을 소장하고 있으며, 25종의 인쇄 저널을 구독하고 있다.

## 2.1 한국학 도서관의 역사



[사진 4] 한국학연구소의 도서관, Fabeckstr. 7  
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동아시아학 연구회 도서관에 있던 자료들도 나누어 각 연구소에  
보관되었다.



[사진 5] 임시 도서관 건물에 있는 한국 서적들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캐롤린 둔켈 박사가 한국학 자료의 목록 및 주제색인을 위해 채용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대한 후원 덕분에 한국학 장서가 크게 확대되었고, 2007년부터는 한국학과 도서관이 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 네트워크 도서관이 되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KOFIC)는 한국학과의 연구

2003년까지는 동아시아학 연구회의 공동 도서관에 한국에 관한 책이 소량 있었다. 그러나 한국학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가 없었다.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과 일부 학생 조교들이 한국 자료를 수집했다. 2005년에 동아시아학 연구회는 중국학연구소, 일본학연구소, 한국학연구소로 나뉘어, 베를린-달렘에 있는 새 건물로 이전

이은정 교수의 후원 하에, 한국학 도서관은 도서관통합프로젝트(24 in 1)의 일부가 되었다. 2007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대학 내 5개 학부의 24개 학과 도서관을 공동분류법과 함께 신축 도서관 건물 1개동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 장서는 일본학 및 중국학 도서관과 함께 공식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교육학 및 심리학과 도서관으로 통합되었다.

영역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DVD를 기증했고, 국회도서관과 한국문학번역원(LTI Korea)은 저널을 지원했다. 2013년 중반에 캐롤린 둔켈 박사가 프로젝트를 떠나면서 한국학 장서의 학생 조교인 자스민 크로츠버그가 2013년 10월에 시간제 사서가 채용되기 전까지 한국 자료를 관리했다. 2014년 1월부터는 이 시간제 사서가 처음으로 한국학 도서관의 전일제 사서로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전일제 사서직에 대한 급여의 50%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학과 도서관은 한국문학번역원이 제공하는 HUB 도서관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었다. 2015년부터 우리 대학의 한국학 장서는 한국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법률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2015년 4월 20일에는 과학, 문화학, 교육학, 수학, 컴퓨터학, 심리학을 위한 새로운 캠퍼스 도서관이 마침내 개관했다.



[사진 6]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 장서의 후원자들

## 2.2 새로운 건물 - “캠퍼스 도서관”(Campusbibliothek)의 소개



[사진 7] 캠퍼스 도서관 정문

- 도서관 명 - Campusbibliothek Natur-, Kultur- und Bildungswissenschaften, Mathematik, Informatik und Psychologie  
*과학, 문화학, 교육학, 수학, 컴퓨터학, 심리학을 위한 캠퍼스 도서관*
- 웹 사이트 - <http://www.fu-berlin.de/sites/campusbib/index.html>
- 개관 연도 - 2015년
- 관 장 - 마틴 리
- 개관 시간 - 월-금: 9 a.m.-10 p.m. 토/일: 10 a.m.-8 p.m.

캠퍼스 도서관은 개가식 서가에서 약 1백만 권의 책을 제공한다. 이 책들은 이전의 24개 연구소 및 학과 도서관들에서 온 것으로, 현재는 통합형 독일 RVK(Regensburger Verbund) 분류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여기서 “통합형”이란 책들이 연구소/학과 도서관 소장자료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통합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전 도서관들의 소장 방식과는 매우 달라진 것이다.



[사진 8] 신축 건물



[사진 9] 리모델링된 구 건물

신축된 3층짜리 도서관 건물에는 고고학, 고대 근동연구, 동아시아학, 동양학, 자연과학 및 수학 분야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교육학 및 심리학과 도서관을 리모델링한

6층짜리 부속 건물에는 교육학, 심리학, 종교학 관련 자료와 학제간 저널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두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이 용이하다.

이 도서관은 독서 데스크와 12개의 그룹스터디룸을 포함하여 약 950개의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또 부모-자녀 방,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방 같은 특별실이 있고, 다목적실, 시험 준비생과 초빙연구원을 위한 개인 열람실 등이 있다.

베를린이나 브란덴부르크에 거주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은 참고용으로 지정된 자료(도서 태그에 붉은 줄로 표시됨)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이용조건 규정에 따라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이용자의 범위는 다양하며 대학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사진 10] 셀프 체크아웃

## 2.3 한국학 자료를 찾는 장소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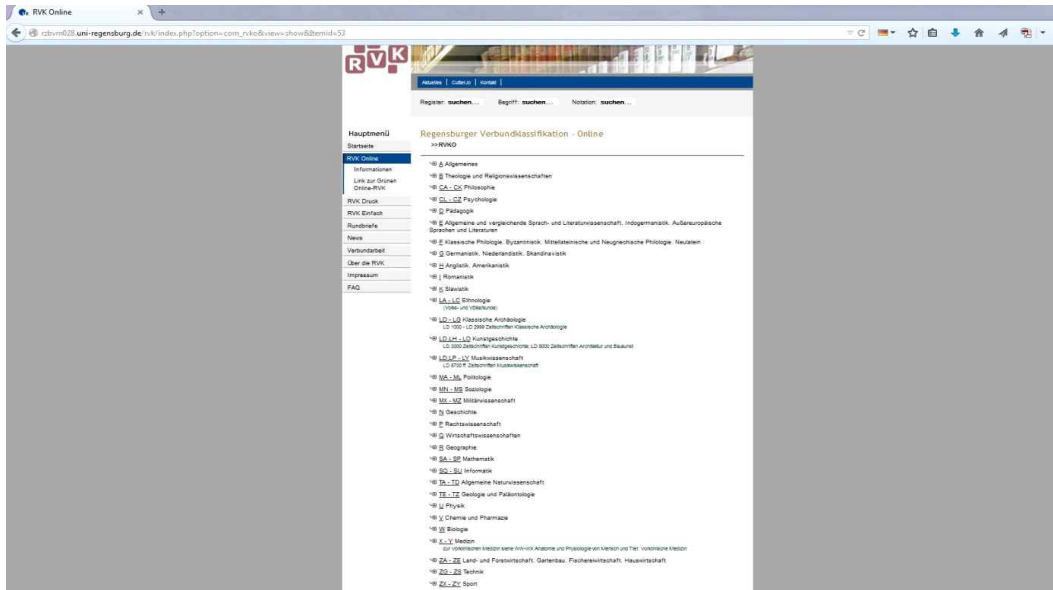
### 2.3.1 분류 체계 및 소재 기호

한국학자료를 “24 in 1” 도서관통합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주제에 따라 먼저 분류한 다음 취득 순서에 따라 정리하던 기존의 분류법(“numerus-currens”)이 폐기되고, 독일 대학교들의 전통적인 핵심 주제영역들에 따라 모든 학문을 그룹으로 조직하는 서가 분류체계인 RVK가 도입되었다. 이제 한국 관련 주제의 모든 자료는 RVK 주제명 표목에 따라 분류되어



[사진 11] RVK 기호와 소재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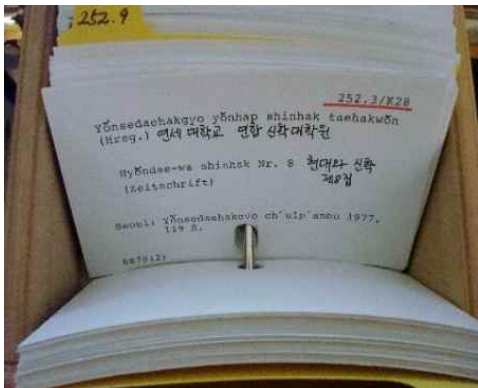
있다. RVK가 아시아학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지역 부호”를 이용해서 동아시아학 연구회에 속한 모든 자료가 한국, 일본, 중국의 세 가지 지역 부호 하에 모이도록 했다. 이 세 국가를 모두 다루는 서적들은 그 중 우선하는 지역 연구 영역에 놓고, 특별한 중심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부호 없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화면 사진 1] RVK의 온라인 버전:

[http://rzbv028.uni-regensburg.de/rvk/index.php?option=com\\_rvko&view=show&Itemid=53](http://rzbv028.uni-regensburg.de/rvk/index.php?option=com_rvko&view=show&Itemid=53)

## 2.3.2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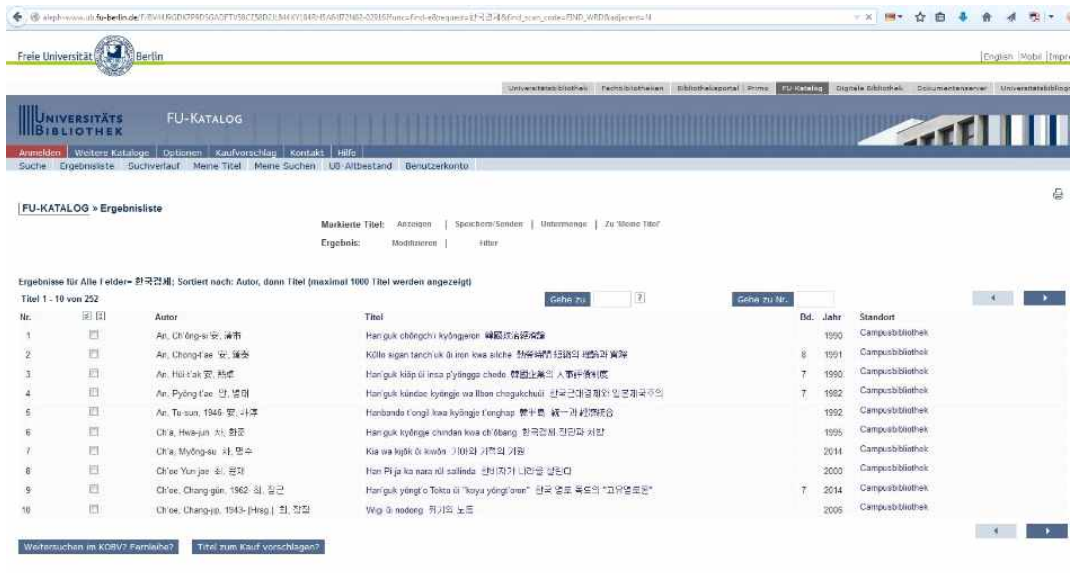


[사진 12] 이전의 카드 색인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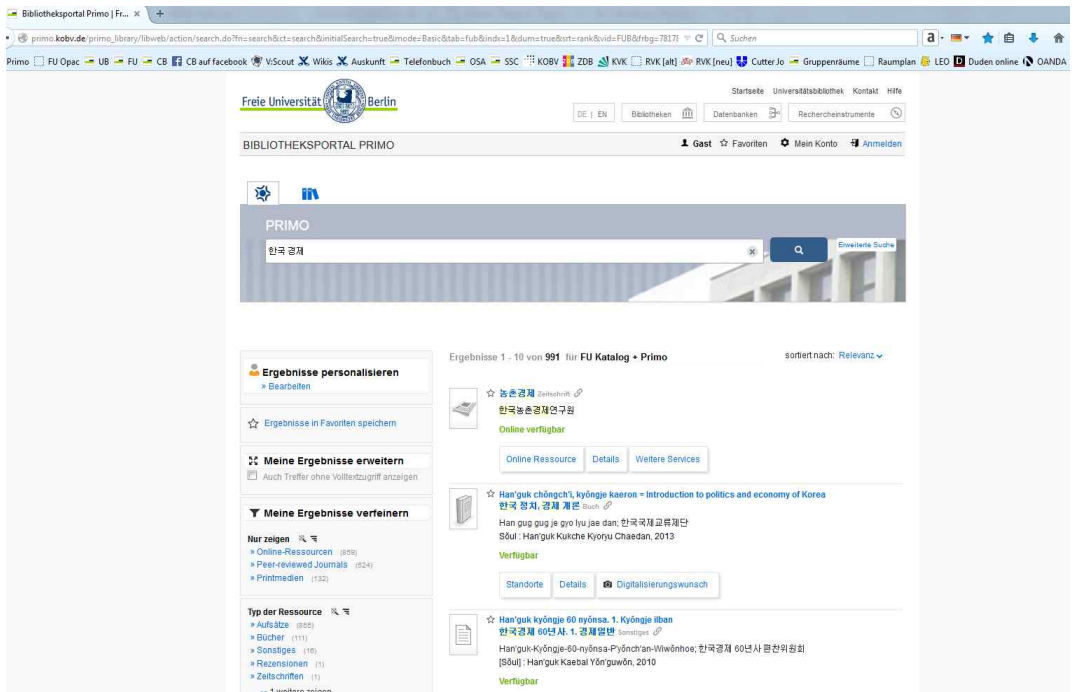
표기나 원어(한글, 한자)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매클라이샤워 표기법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와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학과 일본학, 중국학 사서들은 전자 목록에서 동아시아 언어들의 표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2006년 이전에는 책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카드 색인을 통해 찾아보고, 다른 하나는 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학 장서를 담당하는 사서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와 학생 조교들이 직접 한국학 장서를 관리했다.

대학교의 OPAC시스템으로 한국학 장서를 전자 목록화하는 작업이 2006년에 시작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글로 목록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발음 구별 부호 없이



[화면 사진 2] OPAC 검색



[화면 사진 3] 프리모 검색



그러나 2014년 이후 독어 사용권 국가들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자동으로 로마자로 변환하기 위해 한국어 음절을 음역한 것을 따르는 동향이 나타났다. 음절 검색은 많은 검색 결과를 생성하고 또한 다수의 중국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것은 상당한 불편함을 야기한다. 그래서 동아시아학과의 사서들은 앞장서서 독어권 사서들의 회의를 열어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원어 자료의 표기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날짜는 아직 미정이나 2016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이전의” FU OPAC이 프리모(Primo)라 불리는 검색시스템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 맺는 말

한국학 장서는 지금까지 많이 발전했으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한국학 사서는 일상 업무, 즉 한국학 자료의 수서와 목록, 분류, 이용자 질의 답변 등 외에도 다른 사서들과 함께 하는 수많은 위원회 활동과 기타 업무들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신축 도서관 건물과 함께 이용 조건과 업무 절차가 바뀌었다. 또 작년(2015년)에는 목록규칙이 지난 46년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되었던 RAK에서 RDA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올 여름 즈음에는 도서관 시스템이 Aleph 22에서 ALMA(두 시스템 모두 ExLibris)로 바뀔 예정인데, 이것은 MAB2-포맷에서 MARC-포맷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의 목록화는 특히 원어로 된 데이터의 관리 등 여러 면에서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여러 기관들의 지속적이고 관대한 지원 덕분에 우리 대학교의 한국학 장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독일에서 손꼽히는 한국학 도서관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한국학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Number 15 (June 2016)



##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British Library / 49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y / 71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Free University Berlin / 84



#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British Library

Hamish Todd

Head, East Asian Collections  
British Library

## 1. Introduction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llection of Korean language material housed in the British Library, providing an overview of its history, the key individuals involved in its development and some of the most notable items to be found within it. It will also offer a brief description of both the British Library itself and its other East Asian holdings.



[Photo 1] The British Library site at St Pancras, London

## 2. The British Library

### 2.1 Overview

The British Library is the national library of the United Kingdom. With more than 150 million items in its collections, it ranks as the second largest library in the world. Its holdings include books, manuscripts, maps, newspapers, periodicals, archives, paintings, prints and drawings, photographs, music scores, electronic and audio-visual material, patents and postage stamps, as well as selected sculpture, furniture and even weaponry. The collections cover virtually every written language and span 3,500 years from Shang Dynasty oracle bones to the latest news media. All this currently requires more than 625 km of shelves, but is growing at the rate of 12 km a year as 3,000,000 new items are added. A reader consulting five items per day would require over 80,000 years to view the entire collection!<sup>1)</sup>

The British Library is one of five copyright libraries in the UK, along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the National Library of Wales, the Bodleian Library in Oxford, and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It is the only one of the five which automatically receives a copy of every item published or distributed in Great Britain and Ireland under the legal deposit system. The other copyright libraries may elect which material they receive. Since 2003, legal deposit has also covered non-print materials such as electronic resources and selected websites.

The Library currently employs just over 1,500 permanent and project-based staff, among whom some 160 are specialist curators with expertise in specific languages, subjects or material formats.

---

<sup>1)</sup> British Library Facts and Figures <http://www.bl.uk/aboutus/quickinfo/facts/index.html>.



[Photo 2] The King's Library Tower at St Pancras

## 2.2 History of the British Library<sup>2)</sup>

In accordance with the British Library Act of 1972, the British Library came into being on July 1, 1973 through the amalgamation of the British Museum Librar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the National Lending Libr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The Offic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was added in 1974. The Library's holdings were further enriched by the incorporation of the India

---

<sup>2)</sup> For more information see: Philip R Harris, *A History of the British Museum Library 1753–1973* (British Library, 1998).

Office Library and Records in 1982 and the British Institute of Recorded Sound in 1983.

At the heart of the British Library's historic collections – including the Korean collection – are the books and manuscripts transferred from the library of the British Museum established in 1753. These include the so-called 'foundation collections' of the notable early antiquarians and bibliophiles Sir Robert Cotton (1570-1631), Sir Hans Sloane (1660-1753) and Robert Harley (1661-1724) and his son Edward (1689-1741), 1st and 2nd Earls of Oxford. In addition there was the 'Old Royal Library' donated by King George II in 1757 and the 'King's Library' founded by King George III and donated by his son King George IV in 1823. The latter contains over 65,000 books and 19,000 pamphlets and is housed in the six-story King's Library Tower.

Over the next 150 years, the collections continued to develop. In the 1850s the famous Round Reading Room was designed at the instigation of Sir Anthony Panizzi, then Chief Librarian. Karl Marx, Vladimir Lenin, Charles Dickens, George Bernard Shaw and Virginia Woolfe were just a few of the famous figures to make use of this spectacular reading room. The most precious items in the collection were evacuated for safety during World War II to the National Library of Wales, but direct hits on the Museum building from German bombs still destroyed over 250,000 books.

As early as 1910 the British Museum was suffering from a lack of space for its library collections, and by the 1960s the problem had become acute. The Museum considered constructing a library in the Bloomsbury area of London, but abandoned the idea in 1967. Eventually, following the creation of the British Library, a new site was identified for the building at some derelict railway yards near St Pancras station.



## 2.3 Location

Today the British Library occupies two main sites –St Pancras in London and Boston Spa in Yorkshire.

### 2.3.1 St Pancras

The Library's London site was the largest public building constructed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20th century, with a total floor area of over 112,000 square meters spread over 14 floors – nine above ground and five below.<sup>3)</sup> The basements extend to a depth of 24.5 meters, and trains from the London Underground's Victoria Line can sometimes be heard as they rumble through the nearby tunnels. After decades of discussions over the location of a new home for the Library, construction of the St Pancras building, designed by Sir Colin St John Wilson (1922-2007), began in 1982 and was officially opened by HM The Queen on June 25, 1998. In August 2015 the building was awarded Grade I listed status by the UK government.

### 2.3.2 Boston Spa

Originally a World War II ordnance factory, the Boston Spa site was redeveloped to house the Library's Document Supply Services (BLDSS), which every year provides millions of documents to user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the inter-library loan collections which occupy over 100 kilometers of shelves. A new high-density, low-oxygen Additional Storage Building, opened in 2009, contains space for 7,000,000 items stored in over 140,000 bar-coded containers retrievable by robotic cranes. In 2013, a purpose-built Newspaper Storage Building was completed to house almost 60,000,000 newspaper issues spanning three centuries.

---

<sup>3)</sup> See : Colin St J Wilson,



[Photo 3] The Additional Storage Building at Boston Spa

## 2.4 Use of the collections

### 2.4.1 Onsite

The British Library serves a wide range of users, both from the UK and around the world, including researchers, academics and students, the business and industry sectors and the general public. It has space for over 1,200 readers in its 11 reading rooms and receives almost 400,000 reader visits a year. On average, over 16,000 people use the collections every day (onsite and online), and some 6,000,000 searches are conducted on the Library's online catalogue each year. The Library operates an extensive program of exhibitions and events, attracting over 1,600,000 visits annually.



[Photo 4] The Humanities 1 Reading Room at St Pancras

The exhibition galleries and public areas of the St Pancras building are open to all. Anyone wishing to use the reading rooms and access the collections requires a photographic British Library reader pass, normally valid for three years, which can be issued onsite in the Reader Registration Office upon production of proof of identity and address. Fifty to sixty thousand reader passes are issued annually, and 125,000 passes are currently in circulation.

## 2.4.2 Online

The British Library is committed to improving worldwide access to its collections by digitizing them and making them available via the Internet. Digital versions of more than 8,000 of the Library's historic manuscripts in Western and Asian languages are already available through the Digitised Manuscripts pages.<sup>4)</sup> Other examples of major digitization projects include:

- Collaboration with Google to make 250,000 out-of-copyright printed books available online free of charge;

---

<sup>4)</sup> Digitised Manuscripts <http://www.bl.uk/manuscripts/>.

-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launched in 2011 contains over 600 UK newspaper titles and nearly 14,000,000 pages;
- The **Qatar Project** is a ten-year partnership with the Qatar Foundation and the Qatar National Library to digitize over 1,500,000 pages of records on Persian Gulf history and Arabic scientific manuscripts from the British Library collection.<sup>5)</sup>
- 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British Library and partner organizations in France, Germany, Russia, China, Japan and Korea to make information and images of all manuscripts, paintings, textiles and artefacts from Dunhuang and archaeological sites related to the Eastern Silk Road freely available on the Internet.<sup>6)</sup>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of Korea University is an active partner in this project and hosts the Korean version of the IDP website.<sup>7)</sup>

### 3. Asian and African Collections

The Library's Korean holdings are administered as part of the East Asian Collections, which themselves form part of the department currently called Asian and African Collections.<sup>8)</sup> The other components are:

- African Collections
- [covers languages and cultures south of the Sahara]
-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 Middle Eastern and Central Asian Collections
- [includes Arabic, Hebrew, Persian, and Turkic languages, as well as the Christian Middle East]

---

<sup>5)</sup> Qatar Digital Library <http://www.qdl.qa/en>.

<sup>6)</sup>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http://idp.bl.uk/>.

<sup>7)</sup> Korean webpage of 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http://idp.korea.ac.kr/>.

<sup>8)</sup> Over the decades, this department has been variously named: 'Oriental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Oriental Collections', 'Oriental and India Office Collections', 'Asia, Pacific and African Collections' and 'Asian and African Studies'.

- South Asian Collections
- [includes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the Maldives, Nepal, Pakistan, Sri Lanka and Tibet]
- South East Asian Collections
- [includes Burma,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 Visual Arts
- [historic collections of paintings, drawings, prints, photographs and sculpture]

Together these collections cover more than 500 languages and include 65,000 manuscripts, 900,000 printed books and 120,000 volumes of periodicals and newspapers. They also include maps, electronic resources, prints, drawings, photographs, sculpture and furniture, making them one of the world's leading resources for the study of the Middle East, Asia and Africa.



[Photo 5] Asian and African Studies Reading Room

## 3.1 East Asian Collections

Since the Sloane and Harley collections contained books and manuscripts in Chinese and Japanese as well as other Middle Eastern and Asian languages, items from East Asia have been represented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British Museum Library. As currently organized, the British Library's East Asian Collections comprise four principal sections: **Chinese, Japanese, Korean and Mongolian/Manchu**. Smaller quantities of material in Okinawan, Tangut, Naxi and other languages can also be found. The Korean collection will be discussed later in greater detail, but a brief introduction of the other East Asian Collections is first given here.

3.1.1 The **Chinese collection** contains 100,000 printed books and 20,000 manuscripts (including the Stein collection of material from Dunhuang). Among the most important items are the 'Diamond Sutra' *Jinggang jin* 金剛經, the world's oldest dated 'book' (in fact a scroll) which bears a colophon of 868 CE, a collection of 450 oracle bones used for divination during the Shang Dynasty over 3,000 years ago, and 24 volumes of the famous Ming Dynasty encyclopedia the *Yongle Dadian* 永樂大典.

3.1.2 The **Japanese collection** consists of over 80,000 printed volumes and 500 manuscripts as well as 6,000 periodicals and official publications. The antiquarian (i.e. pre 1868) holdings comprise 4,000 printed works, 400 manuscripts and 500 prints. The earliest items in the collection are examples of the 'One Million Pagoda Dharani,' or Hyankumantō darani 百萬塔陀羅尼, printed between 764 and 700 CE. There are 120 early works printed in movable type, including the only known copies of *Tale of the Heike*, *Aesop's Fables* and *Qincuxu* printed in Romanized Japanese by the Jesuit Mission Press in Amakusa in 1592-1593.



[Photo 6] Cheongeo Nogoldae 清語老乞大, Manchu-Korean phrasebook, 1765, BL: 19951.c.44

3.1.3 The **Mongolian** collection contains more than 2,000 printed items and around 90 block prints and manuscripts, chiefly of Buddhist sutras and religious works. The **Manchu** collection is made up of 36 manuscripts, 226 block prints and nearly 4000 printed books. Records for both collections incorporating traditional Mongolian and related Manchu scripts have been added to the online catalogues as part of a two-year retroconversion project.

One unusual item in the collection is a bilingual Korean-Manchu phrase book *Cheongeo Nogoldae* 清語老乞大, published in 1765 and intended for use by Korean travelers to Qing China.

### 3.2 Staffing

Currently around 50 staff are employed in Asian and African Collections, including those working on fixed-term projects. The East Asia team includes five members – a Head of East Asian Collections who leads the team and manages the Korean and Japanese collections, a Japanese Curator, a Lead Curator for Chinese and a Chinese Curator. The fifth member of the team is a Mongolian and Manchu specialist working on a fixed-term retrospective conversion project.

### 4. Korean collection



[Photo 7] *Munjado*, 19th century. BL: Or.14794



## 4.1 Size and scope

The British Library's holdings of Korean-language material consist of approximately 15,000 monographs and over 500 periodicals, official publications and newspapers from South and North Korea, of which 300 are currently still being acquired. The collection of antiquarian material contains 180 works printed before 1910 and 70 manuscripts.<sup>9)</sup>

## 4.2 Development of the Korean collection

### 4.2.1 Early acquisitions<sup>10)</sup>

Whereas China and Japanese material have been present in the British Museum Library since its inception in 1753, as noted above, the first Korean item was a transcription of the Lord's Prayer into the Korean Hangeul script acquired in 1843. Because of its comparative inaccessibility and the restrictions placed by the Joseon state on foreign trade, it was not until the later part of the 19th century that Korean books began to appear in Western libraries in any numbers.

The first significant collection of Korean books came to the British Museum from the diplomat and bibliophile Sir **Ernest Mason Satow** (1843-1929) in 1884. It comprised 26 Korean printed books out of a total of 938 mostly Japanese volumes purchased for £300. The following year, Satow donated a further 21 Korean works from among 106 works in 640 volumes.<sup>11)</sup>

---

<sup>9)</sup> For more details see the Korean collection page on the British Library website <http://www.bl.uk/collection-guides/korean-collection>.

<sup>10)</sup>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collection can be found in: Elizabeth McKillop, 'Early Printed Books from Korea in the British Library' in *Daiei Toshokan shozō Chōsenbon oyobi Nihon kosho no bunkengakuteki, gogakuteki kenkyū* 「大英図書館所蔵朝鮮本目録及び日本古書の文献學的・語學的研究」 (Toyama University, 2007).

<sup>11)</sup> For further details about Satow and his collections, see: Hamish Todd, 'The Satow Collection of Japanese Books in the British Library: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in *Daiei Toshokan shozō Chōsenbon oyobi Nihon kosho no bunkengakuteki, gogakuteki kenkyū* 大英図書館所蔵朝鮮本及び日本古書の文献學的・語學的研究, ed. by Yukio Fujimoto (Toyama: Toyama Daigaku, 2007).



[Photo 8] Ernest M. Satow

Satow served two terms in the British Legation (Embassy) in Japan, firstly from 1862-1883 as Japanese Secretary and then as Second Secretary, and secondly from 1895 to 1900 as Minister Plenipotentiary. His final posting was as Minister Plenipotentiary in China from 1900-1906. Satow combined his diplomatic career with wide-ranging studies of many aspects of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publishing 16 major works and 76 articles and papers over a 60-year period. However, it is his work on Japanese and Korean bibliography, in particular of the history of printing in Japan and Korea,<sup>12)</sup> which is his most important scholarly achievement and which led to his acquisition of the early examples of Korean movable-type and woodblock printing which form a key part of the collection now in the British Library.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Britain and Korea in 1884 saw a period of more regular additions of Korean material to the Library from Western

---

<sup>12)</sup> Ernest M Satow, 'On the History of Early Printing in Japan' and 'Further Notes on Movable Types in Korea and Early Japanese Printed Books' in th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1882.

travelers, diplomats and missionaries. In the decades following the arrival of Satow's collection in 1884-1885, there are references to acquisitions of Korean printed books and manuscripts in the British Library archives in 1889, 1894, 1897, 1900, 1902, 1906, 1909, 1910, and 1913.

In 1906 the British Museum purchased the library of **Thomas Watters** (1840-1901), an Irishman who joined the Chinese consular service in 1863. He served in Peking and Taiwan, became Acting Consul-General in Seoul, Korea in 1887-1888 and then served as Consul in Canton until his retirement in 1895. He wrote widely on Chinese Buddhism and although most of the 850 books acquired in 1906 were Chinese editions, a number of Korean works were also included.



[Photo 9] Homer B. Hulbert

Another important figure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llection was the American **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who lived in Korea from 1886 to 1907, teaching English at the Royal School. He later became a vocal critic of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and was expelled by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in 1907. Hulbert regularly sold

books and manuscripts to the British Museum including nine printed works in 35 volumes, three manuscripts in 14 volumes, a celestial planisphere and a map of Korea in 1900, and the encyclopedic *Dongguk munheon bigo* 東國文獻備考 in 235 parts in 1907.

The last of the early acquisitions of Korean material came in 1909 and 1913, when the British Museum bought from Stanley Steele two consignments of Korean books formerly belonging to his wife's uncle **Alfred Burt Stripling**. Born in Cornwall in 1838, Stripling worked for many years in the Shanghai Municipal Police and in 1896 became an adviser to the Korean government's newly formed Police Department. He died in 1904 and was buried in Seoul.

#### 4.2.2 Current collection development

After a period of relative inactivity in the years between the World Wars, the Korean collection began to grow in the 1960s. Material is currently acquired by purchase, exchange and donation. The modern collections are particularly strong in the fields of literature and language, history, philosophy, archaeology and art, reference works and geographical texts. Holdings of post-1955 North Korean publications amount to over 1,000 monographs and serials titles. Exchange agreements with the National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other partners in South Korea have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a sizable collection of official publications and grey literature.

In addition to the Korean language material in the collection described above, the British Library also collects material relating to Korea written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of Europe and Asia. For example, there are approximately 20,000 works in Western languages. In addition, there are 450 maps of Korea in our Cartographic Collections and 700 Korean sound recordings in the Sound Archive.

#### 4.3 Highlights of the Korean collection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Korean collection is *Gisa jin pyori jinchan uigwe* 己巳進表裏進饌儀軌, a royal commemorative manuscript from 1809 (Or.7458) which

records in lavishly illustrated detail the ceremonies conducted in honor of Lady Hyegyeong 惠慶宮 (1735-1815), widow of Crown Prince Sado (1735-62) and grandmother of King Sunjo (1790-1834).

Originally purchased by the British Museum in 1891, this manuscript has been digitized and can be viewed on the British Library's Digital Manuscripts homepage.<sup>13)</sup>



[Photo 10] Royal manuscript, 1809. BL: Or.7458

Other notable items include:

- 20 manuscript maps and atlases, including a court-sponsored atlas of the provinces and various copies of Gim Jeong-ho's famous *Daedong Yeojido* 大東輿地圖 (General Atlas of Korea), and a fine, possibly unique, scroll-format map dated ca. 1898, *Daehan Jeonjido* 大韓全地圖.

<sup>13)</sup> [http://www.bl.uk/manuscripts/FullDisplay.aspx?index=0&ref=Or\\_7458](http://www.bl.uk/manuscripts/FullDisplay.aspx?index=0&ref=Or_7458)

- A collection of 35 mid-19th century novels printed in *Hangeul* script.
- Illustrated manuscripts include a fine 18th century album of poetry and landscape scenes entitled *Okkyesa* 玉溪社.
- 15th and 16th century editions of Confucian texts published in the early Chosŏn period by the royal court to promote Confucian Chinese rules. *These editions of Iryun haengsildo* 二倫行實圖 (Illustrations of the Two Bonds), *Samgang haengsildo* 三綱行實圖 (Illustrations of the Three Bonds) and related works have explanations in Korean accompanying the original Chinese text and are among the earliest books to be printed using the *Korean Hangeul* alphabet promulgated in 1446.
- 50 early works printed with movable type, including examples of important fonts such as *Gyeongja* from 1420 and *Gabinja*, first used in 1434.



[Photo 11] Chunchu *gyeongjeon jiphae* 春秋經傳集解.  
 Collected commentaries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Printed 1434 using *Gabinja* font movable type. BL: 16015.c.3

- Five 19<sup>th</sup> century *munjado*, calligraphic paintings representing Confucian virtues, mounted as hanging scrolls.

- A 19<sup>th</sup> century examination paper, *sigwŏn*, from the Korean civil service examinations (gwageo 科擧) with the name and identity of the candidate still sealed.
- A set of acupuncture charts showing the energy paths leading to cures to particular organs of the human body according to East Asian therapeutic traditions.
- 100 genre scenes by the late 19th century artist Gisan (*Gim Jun-geun*), depicting occupations and street life of the time.
- An early 19th century manuscript copy of the encyclopedia *Dongguk munheon bigo* 東國文獻備考, a valuable historical and political record of Korea before its opening to the West.

## 4.4 Management of the collection

### 4.4.1 Location

The Korean collection is not kept as a separate entity, but is dispersed among other collections according to rarity, format and size. Manuscripts and rare printed items are kept in secure storage areas in the St Pancras building. ‘Oriental’ manuscripts form a consecutive sequence with a shelfmark assigned according to date of acquisition, so Korean titles are interspersed with those in other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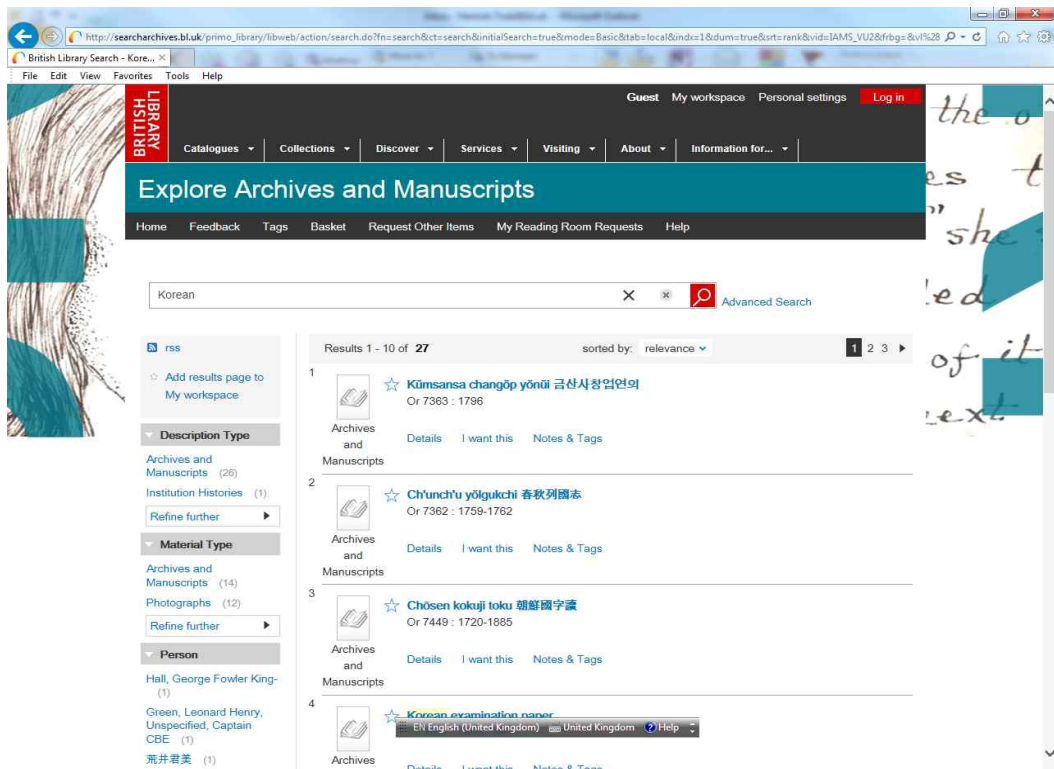
Because the Library lacked a staff member able to recognize and describe works written in Korean until the 1950s, early acquisitions of rare Korean printed books were often mistaken for Chinese and were (and still are) shelved alongside Chinese works. In the past 50 years or so, re-cataloguing and reattribution of many works has been carried out and Korean items are now clearly distinguished from Chinese and Japanese items, although a few isolated examples of problematic attribution do occasionally surface.

Modern printed works in Korean are also integrated with other languages in a shelfmark sequence based on year of acquisition and size. This material is now stored in the Additional Storage Building in Boston Spa and upon request can be transported within 48 hours to readings rooms for users to consult.

## 4.4.2 Catalogues

Historically, bibliographic details of Korean language material were recorded in a card catalogue comprising author, title and subject sequences. Since 1994, records for Korean printed material have been added to the British Library's automated catalogue, and retroconversion of the catalogue cards is now nearly complete. These records can be searched via the Library's main online catalogue *Explore the British Library*.<sup>14)</sup> Records are Romanized using the McCune-Reischauer system, but the more recent ones include Korean script.

Details of Korean manuscripts can be found in the online catalogue *Explore Archives and Manuscripts*.<sup>15)</sup>



[Photo 12] Interface of the online manuscripts catalogue

14) <http://explore.bl.uk>.

15) <http://searcharchives.bl.uk/>.



### 4.4.3 Staffing

For many years the Korean collection was looked after by staff from the Chinese Section. From the early 1980s to 2004, the collection was under the care of Ms. Elizabeth McKillop, who made a major contribution to its development and management. Under her custodianship, initially in her role as a Curator in the Chinese Section and later in the dedicated post of Korean Curator, she carried out extensive research into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allowing her to identify and catalogue early Korean editions and raise the profile of the collection through a series of articles and lectures.

From 2004-2006 Ms. McKillop worked with Prof. Yukio Fujimoto of Toyama University, an expert on Korean antiquarian bibliography, in a three-year project to catalogue the British Library's early Korean books. Following Ms. McKillop's departure, responsibility for the Korean collections passed to Mr. Hamish Todd, Head of the Japanese Section, whose title was adjusted to 'Lead Curator for Japanese and Korean' to reflect this new combined role. In 2014, following a reorganization of the Asian department, he was appointed Head of East Asian Collections and continues to manage the Korean holdings.

## ■ References

---

Philip R. **Harris**, *A History of the British Museum Library 1753-1973* (London: British Library, 1998).

Anthony **Kenny**, Sir, *The British Library and the St Pancras building* / Sir Anthony Kenny (London: British Library, 1994)

Yukio **Fujimoto** and Elizabeth D. **McKillop**, 'Korean Books at the British Library' in *Chosen Gakuho: Journal of the Academic Association of Koreanology in Japan*. No. 216 (July 2010).

Elizabeth D. **McKillop**, 'Early Printed Books from Korea in the British Library' in *Daiei Toshokan shozō Chōsenbon oyobi Nihon koshō no bunkengakuteki, gogakuteki kenkyū* 「大英圖書館所藏朝鮮本目錄及び日本古書の文獻學的・語學的研究」 (Toyama: Toyama University, 2007).

Elizabeth D. **McKillop**, 'Korean Holdings in the British Library' in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Vol. 85 (1988).

Hamish A. **Todd**, 'The Satow Collection of Japanese Books in the British Library: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in *Daiei Toshokan shozō Chōsenbon oyobi Nihon koshō no bunkengakuteki, gogakuteki kenkyū* 大英圖書館所藏朝鮮本及び日本古書の文獻學的・語學的研究, ed. by Yukio Fujimoto (Toyama: Toyama Daigaku, 2007).

Colin St J. **Wils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British Library* (London: British Library, 1998)

British Library websites:

British Library Facts and Figures <http://www.bl.uk/aboutus/quickinfo/facts/index.html>

Catalogue of printed items: <http://explore.bl.uk>

Catalogue of manuscripts: <http://searcharchives.bl.uk/>.

East Asia Collections: <http://www.bl.uk/subjects/east-asia>

Korea Collections: <http://www.bl.uk/collection-guides/korean-collection>

Digitised manuscripts: <http://www.bl.uk/manuscripts/>

#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y

Hay Mew (Amy) Hwang /  
Guoqing Li

---

Assistant, East Asian Studies Program  
Ohio State University /  
Professor, Chinese & Korean Studies Librarian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 About the Ohio State University

The Ohio State University, commonly referred to as Ohio State or OSU, is a public research university located in Columbus, Ohio. Founded in 1870, the university was originally known as the Ohio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In 1878, the Ohio General Assembly passed a law that changed its name to "The Ohio State University". It has since grown into the third-largest university campus in the United States.

In 2014, OSU enrolled approximately 51,200 undergraduate students and 10,400 graduate students. Out of these, 6,178 were international students. Studen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the third-largest body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OSU, following those from China and India.<sup>1)</sup>

---

<sup>1)</sup> "Highlights Of Fifteenth Day Enrollment," *The Ohio State University Enrollment Services – Analysis And Reporting*, accessed August 20, 2015, [http://oesar.osu.edu/pdf/student\\_enrollment/15th/enrollment/15THDAY\\_AUTUMN\\_2014.pdf](http://oesar.osu.edu/pdf/student_enrollment/15th/enrollment/15THDAY_AUTUMN_2014.pdf).



[Picture 1] Aerial view of the Oval, the heart of the Ohio State University's main campus<sup>2)</sup>

## East Asian Studies Center (EASC)

Established in 1969, the East Asian Studies Center (EASC) at OSU “strives to be a catalyst for original thought and action in the study of East Asia in Ohio,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Combining their unique expertise with that of an extensive number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ner institutions, the EASC is pioneering innovative approaches to deepen knowledge, refine general understanding, and promote ongoing scholarship on East Asia and its role within the world.

Two major grants fro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under its Title VI National Resource Center (NRC) and Foreign Language and Area Studies (FLAS) Fellowship programs were provided in 2014. This funding for 2014-2018 was over \$2.3 million.

---

<sup>2)</sup> All images unless otherwise noted are provided by University Communications, The Ohio State University (<http://ucom.osu.edu/photo-gallery/>)

EASC works closely with the OSU Libraries in hosting exhibitions and conferences. Last year alone, EASC collaborated with the OSU Libraries to host two manga conferences.

##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KS)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KS) is one of EASC's three affiliated institutes. It began as the Korean Studies Initiative in 2005. In 2011, in an effort to rationalize and enhance Korean programming for academic collaboration and outreach, the institute was officially established.

“The mission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s to provide leadership for Korean Studie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and assist academic and administrative units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to advance and disseminate knowledge about Korea. The Institute is devoted to the study of all things Korean, including its people, language, art, culture, history, environment, government and politics, economy and business, and other aspects of its society. It is committed to maintaining and enhanci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putation of Korean Studie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in all areas of research, education, and professional service, including outreach for K-12 education, business, the community, the state and the nation. At its core, the Institute supports OSU's primary mission of advancing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f Ohio and the global community through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about Korea's past, present, and future.”<sup>3)</sup>

IKS assists with the operation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for high-school history teachers nationwide, focusing on the Cold War and East Asia, and provides an annual lecture series devoted to East Asian security. The institute is also a part of a program funded by the Korea Foundation that has sponsored the development of a series of e-classes on Korea shared by many Big Ten Universities.

---

<sup>3)</sup>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Center*, accessed August 19, 2015, <https://easc.osu.edu/iks>.

## Korean Studies Program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One of the largest programs of its kind in the United States<sup>4)</sup>,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DEALL) was established in 1970. It currently offers undergraduate degrees and graduate programs in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including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Korean. OSU provides a variety of courses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addition to five levels of Korean language courses, the faculty teaches a wide range of classes, including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literature in translation, linguistics and art. One of the program's strengths is the study of traditional storytelling, drama and musical performances. Currently, there are about 50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the Korean major, and a little more than 15 students that have declared a minor in Korean.

OSU also operates exchange programs with universities in South Korea, such as Yonsei University and Sogang University in Seoul and Soonchunhyang University in Asan.

##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OSUL) consists of 13 libraries at the Columbus campus, as well as additional libraries at regional campuses such as Newark and Marion.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publishes a series of statistics annually ranking its member libraries according to several criteria, including expenditure, staffing, and data on collections. For the 2013-2014 survey, ARL ranked OSUL as 14th among its 115 member libraries and 6th among public universities for total library expenditures. For that year, OSUL's total expenditures were \$48 million, which includes \$18.9 million for the collection budget.<sup>5)</sup>

---

<sup>4)</sup> "About U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accessed August 19, 2015, <https://deall.osu.edu/about-us>.

OSUL maintains 6 million titles or 8.9 million of volumes (print and electronic) in its collections.<sup>6)</sup> In 2012, OSUL was ranked 28th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 its listing of the 100 largest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by volumes held.<sup>7)</sup>

The library employs 313<sup>8)</sup> staff members, which includes 151 professional staff and 162 support staff. The library also hire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ith work hours amounting to approximately 370 FTE (full-time equivalent).<sup>9)</sup>

OSUL is a charter member of OhioLink, which consists of 88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Ohio, as well as the State Library of Ohio. OhioLink was established to allow resources to be seamlessly shared between member libraries. In addition to OhioLink, OSUL participates in the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CIC), a consortium of Big Ten institutions.

## East Asian Studies Collections

The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began to systematically develop the East Asian collection during the term of Dr. Lewis C. Branscomb, Jr., which lasted from 1952 to 1971.<sup>10)</sup> The idea of a separate East Asia collection was first proposed in 1963, but was

---

5) "ARL Statistics,"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ccessed August 21, 2015, <http://www.arlstatistics.org/analytics>.

6) "ARL Statistics for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Libraries*, accessed August 21, 2015, <http://library.osu.edu/about/departments/assessment/data-portal/arl-statistics-for-ohio-state-university-libraries/>.

7) "The Nation's Largest Libraries: A Listing By Volumes Hel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ast modified October 2012, <http://www.ala.org/tools/libfactsheets/alalibraryfactsheet22>.

8) Staff numbers are calculated by FTE

9) "ARL Statistics for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Libraries*, accessed August 21, 2015, <http://library.osu.edu/about/departments/assessment/data-portal/arl-statistics-for-ohio-state-university-libraries/>.

10) Donovan, Maureen, "Time and Change: Reflections o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Library Collection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ver a Hundred Years of Collecting: The History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Berkeley, CA, October 18-20, 2007).

not carried out until 1964 when Wen-yu Yen, the first East Asian librarian, was hired.<sup>11)</sup> Nonetheless, collecting East Asian language resources or materials related to East Asian studies began during the terms of Ohio State’s first two university librarians, long befor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n collections.<sup>12)</sup>

## Korean Studies Collection

### Collection Strategy and Development:

Prior to 1987, the East Asian librarian was responsible for Korean language resources. In 1987, a Chinese and Korean Studies Librarian position was established and Carmen Lee was appointed to the new role.<sup>13)</sup> In 1988, when OSUL began to collect data,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held only 1,075 volumes. The collections have been growing steadily ever since, however, and by 2014 they contained more than 8,500 monographs and serials, 196 audio/visual resources and art works, and 115 sheets of Microform.<sup>14)</sup>

Table 1 below shows the growth of our collection from 2004-2014.<sup>15)</sup>

<Table 1> Size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in OSUL (2004–2014)

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Physical Volumes Held	4,506	4,864	4,971	6,806	5,325	6,537	6,678	7,512	8,024	8,548	8,571
Physical Volumes Added During Year (Gross)	362	358	107	1,836	500	1334	141	834	512	524	192

11) Ibid.

12) Ibid.

13) Ibid.

14)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13–2014,”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accessed August 19, 2015, <http://ceal.lib.ku.edu/ceal/>.

15) Ibid.



The collections experienced their greatest growth in 2007, with more than 1800 volumes added. As more and more journals and monographs have become available online or are published as e-books, the number of physical volumes added to our physical holdings has declined.

The collection strategies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emphasize Language and Literature,<sup>16)</sup> with about 47% of the titles in our physical holdings belonging to this category.<sup>17)</sup> Within the Language and Literature category, about 19% of the titles are in the Language and Language Study subcategory,<sup>18)</sup> while 78% are Korean literature titles.<sup>19)</sup> Other major areas of the collections include Philosophy, History, Social Sciences and Fine Arts.

Comparing the collection surveys conducted in 2007 and 2015, the largest increase in terms of number is seen in the Language and Literature category. However, the largest increase in terms of percentage falls in the History category.<sup>20)</sup> In 2007, only 1% of titles were in the History category, yet in 2015, titles in this category amounted to 21% of the collections.

## Location

About half of our Korean Studies Collections are housed in OSU's William Oxley Thompson Memorial Library, commonly known as Thompson Library. Thompson Library is the largest library on the university's main Columbus campus. Other locations for the material include the Architecture Library, Fine Arts Library, the Billy Ireland Cartoon Library and Museum, and OSUL's off-site storage facility, the Book Depository.

---

<sup>16)</sup>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lass P

<sup>17)</sup> All data unless otherwise noted are based on August 2015 collection survey data

<sup>18)</sup>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PL 901 to PL 949

<sup>19)</sup>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PL 950 to PL 998

<sup>20)</sup>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lass D

Within the Thompson Library,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are mostly held on the 3rd floor mezzanine. This floor is designated for East Asian language materials. In addition, recent issues of 19 popular Korean journal titles are shelved in the East Asian Current Journal Reading Room for patrons to browse. Library-use only reference material are located in either the Grand Reading Room or the corridor outside the Grand Reading Room on the 2nd floor. Korean book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rare books or are part of the Special Collections are non-circulating and may only be accessed in the combined Jack and Jan Creighton Special Collections Reading Room in Thompson Library.



[Picture 2] OSU's William Oxley Thompson Memorial Library



[Picture 3] Thompson Library Grand Reading Room

## Usage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are actively used for teaching, research and leisure reading. In 2014, one database alone experienced 3,052 page views and 697 article downloads. For fiscal year 2015, OSUL filled 137 loan requests from other universities for Korean language materials via Interlibrary Loan. Moreover, titles from the collections are often loaned to libraries in Ohio via the OhioLink service. Additionally, selected titles from our collections were sent to Google for a book scanning project.

To better understand the needs of our patr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collections, we started to collect circulation statistics for our materials. This data is one of the determining factors regarding strategies for further collection development. For example, beginner Korean language learning books were the top circulating items for the Fall 2014 semester. This strong interest in books for beginner and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learners was also reflected in our blog-viewing numbers. As a result, about 80 books targeting students in the early and middle stages of learning Korean language were purchased, and a corresponding “Korean Extensive Reading”<sup>21)</sup> Libguide webpage was set up in order to help students search for books without requiring mastery of the language.

## Communication with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The environment of the academic library is undergoing a number of changes. Catalogs were once the main tool that connected library users with collections. However, relying solely on the library catalog is no longer a viable solution:

“Today, the catalog operates against a backdrop of flat or declining use of library collections, flashy and powerful alternatives for information discovery, rapid changes in information technology, rising expectations of library patrons, a rapid increase in new kinds of digital assets, mass digitization projects, and an incipient revolution in scholarly information exchange. If one accepts the premise that library collections have value, then library leaders must move swiftly to establish the catalog within the framework of online information discovery systems of all kinds.”<sup>22)</sup>

Although the OSUL catalog remains one of the main tools used by our patrons, we have begun to employ other avenues to promote awareness of our programs and services, as well as for reaching out to users.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maintains a blog and regularly submits updates to the newsletter for the East Asian Studies Center (EASC).

---

<sup>21)</sup> <http://guides.osu.edu/KoreanReading>

<sup>22)</sup> Calhoun, Karen, *The changing nature of the catalogue and its integration with other discovery tool*, Library of Congress, 2006, accessed August 21, 2015, <http://www.loc.gov/catdir/calhoun-report-final.pd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blog<sup>23)</sup> typically uploads one post per week, and averages 150 views per month. Topics of the blog posts range from news updates to introducing specific items in the collections. One of our blog series, titled “From our Shelves”, features books or films from the collections. Each post briefly describes the featured resource and provides links to further reading and research on related topics. The blog serves several functions. Apart from reaching out to our patrons and promoting our services, it also helps us understand our patrons’ interests and needs. Viewing data on the blog posts are collected and analyzed to help develop services and collections that better fit the interests of our patrons.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maintains a Collection website under the main OSUL library domain. The website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collection and includes several subpages. One of these is the “New to the Collections”<sup>24)</sup> resources list, which is typically updated monthly. This page lists all of the resources that were added that month to the collections. Since the resource titles are sorted by call number,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can quickly browse through the list for subjects in which they hold an interest. The list also has links that direct our patrons to the catalog if they would like to request a resource.

Another subpage is “Top Circulating Items”.<sup>25)</sup> This page features the Korean language resource items that were most popular among OSUL users in the previous semester. Collection usage data is collected every semester, and the results provide insight and demonstrate quantifiable trends to help inform the library on collection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collections webpages and blogs, Libguide is a further tool applied by OSUL. Libguide is a Content Management System that is used by a number of libraries, and OSUL uses it primarily to create subject, course, or topic guide webpages.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developed several Libguide webpages, including the “Korean Extensive Reading” Libguide, and the “Korean Studies Resources” Libguide.<sup>26)</sup>

---

23) <http://library.osu.edu/blogs/koreancollections/>

24) <https://library.osu.edu/find/collections/korean-studies-collections/new-to-the-collections/>

25) <https://library.osu.edu/find/collections/korean-studies-collections/top-circulating-items/>

Many of OSUL's Libguide pages are linked to Carmen, the Ohio State University's course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development, students can easily access the Libguide pages developed for their courses with just the click of a button.

## Conclusion

Although OSUL's Korean Studies Collections has advanc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s, we continue to share many of the challenges struggled with by other foreign language collections in the U.S. Compared to the overall patrons of the library, the proportion using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s is small. It can be difficult to articulate the value of the collections using common metrics such as usage statistics alone.<sup>27)</sup> Furthermore, how can we connect with users who are still in the burgeoning stages of developing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Moreover, the collections must support patrons with highly diverse language abilities pursuing a wide range of research topics. With limited resources, how can the collection strike a balance between developing general resources and developing collections of rare and distinctive resources?

Perhaps one of the strengths we can rely on is our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at the East Asian Studies Center (EASC) and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DEALL). The number of patrons from both the student and faculty body who are using the collection is small compared to the total patrons for the whole university. Thus, we tend to enjoy more direct contact with our patrons in comparison to other collection librarians. As a result, it is easier for us to monitor research trends and curriculum changes.

---

<sup>26)</sup> <http://guides.osu.edu/korean>

<sup>27)</sup> Hazen, Dan, "Area Studies Librarianship and Interdisciplinarity: Globalization, the Long Tail, and the Cloud," in *Interdisciplinarity and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Daniel C. Mack, Craig Gibson,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2), 126.

## ■ Bibliography

---

- “About U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Accessed August 19, 2015. <https://deall.osu.edu/about-us>.
- “ARL Statistics.”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ccessed August 21, 2015. <http://www.arlstatistics.org/analytics>.
- “ARL Statistics for Ohio State University Libraries.”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Libraries. Accessed August 21, 2015. <http://library.osu.edu/about/departments/assessment/data-portal/arl-statistics-for-ohio-state-university-libraries/>.
- Calhoun, Karen. The changing nature of the catalogue and its integration with other discovery tool. Library of Congress, 2006. Accessed August 21, 2015. <http://www.loc.gov/catdir/calhoun-report-final.pdf>.
-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2013-2014.”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Accessed August 19, 2015. <http://ceal.lib.ku.edu/ceal/>.
- Donovan, Maureen. “Time and Change: Reflections o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Library Collection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ver a Hundred Years of Collecting: The History of East Asi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Berkeley, CA, October 18-20, 2007.
- Hazen, Dan. “Area Studies Librarianship and Interdisciplinarity: Globalization, the Long Tail, and the Cloud.” In *Interdisciplinarity and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Daniel C. Mack, Craig Gibson, 115–129.(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2
- “Highlights Of Fifteenth Day Enrollment.” The Ohio State University Enrollment Services – Analysis And Reporting. Accessed August 20, 2015. [http://oesar.osu.edu/pdf/student\\_enrollment/15th/enrollment/15THDAY\\_AUTUMN\\_2014.pdf](http://oesar.osu.edu/pdf/student_enrollment/15th/enrollment/15THDAY_AUTUMN_2014.pdf).
-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Center. Accessed August 19, 2015. <https://easc.osu.edu/iks>.
- “The Nation’s Largest Libraries: A Listing By Volumes Hel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ast modified October 2012. <http://www.ala.org/tools/libfactsheets/alalibraryfactsheet22>.

#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the Free University Berlin

Liliane Sperr

Librarian, Korean Department, Campus Library  
Free University Berlin

## 1. Introduction to the Free University Berlin and the Seminar of East Asian Studies



\* Source: Freie Universität Berlin

- Name Freie – Universität zu Berlin  
*Free University Berlin*
- Website – <http://www.fu-berlin.de/>
- Place – Berlin, Germany
- Founding year – 1948
- Number of Departments – 12
- Number of Students – 32,800

Truth, Justice, Liberty – the words, which in Latin form frame the seal of Freie Universität Berlin, stand for the values that have defined the academic ethos of Freie Universität ever since 1948 when it was founded by students, scholars, and scientists with the support of the American allied forces and politicians in West Berlin. Although Freie



Universität Berlin is a relatively young university, it is steeped in tradition since it is located in the Dahlem district, an area in the southwest of Berlin which by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had already become a leading location for research and study.

In 2007 Freie Universität was selected as a university of excellence by the federal government's Excellence Initiative.



[Photograph 1]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ince 2006, Fabeckstr. 7

The first East Asian seminar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was established in 1956, namely the Sinology department. Two years later, Japanese Studies was added. Within the Japanese Studies department, Korean language classes were offered starting in 1964.

In 1987 Dr. Hans-Jürgen Zaborowski was appointed as lecturer and developed a Korean Studies curriculum with a special focus on literature.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year 2003 that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as a separate institute within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After Dr. Zaborowski retired, Dr. Holmer Brochlos served as the acting head of the institute through the years 2004 to 2008 and initiated the first regular Korean Studies bachelor degree program.

In 2008 Prof. Dr. Eun-Jeung Lee was appointed to the professorship, and ever since the Korean Studies program has flourished in various fields. In the area of research, a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democratization issues and the unification question. Besides Korean language classes, the current curriculum is composed of courses on Korean culture and society, history, politics and economics.



[Photograph 2]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 Image Credit: Bernd Wannemacher

In 2013 a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GEAS) was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of the federal Excellence Initiative. It offers doctoral and postdoctoral programs for researchers interested in Korea, Japan and China. Furthermore, three assistant professors support the GEAS – for Korean Studies, Dr. Hannes B. Mosler holds this position.

As a networking university with about 330 university partnerships, Freie Universität Berlin offers its students many possibilities for academic exchange with other countries. Currently there are five partner universities in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 2.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Campus Library



[Photograph 3]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Campusbiblioth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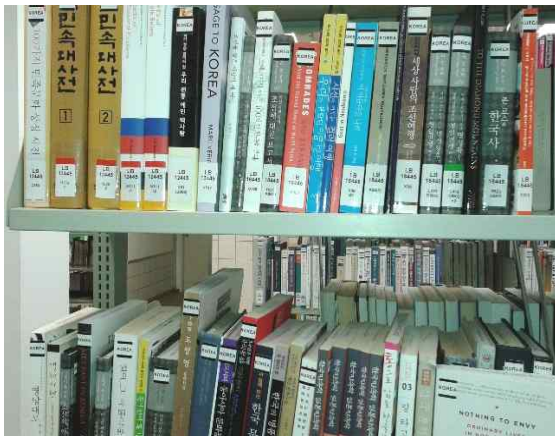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of Freie Universität holds about 18,500 books, 870 films and 25 print journals in subscription.

### 2.1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Studies library

Until 2003 there was a joint library for the Seminar of East Asian Studies with a small amount of books on Korea. However, since there was no Korean Studies institute, no regular acquisition of Korean materials was possible. During the establishment phase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researchers themselves and some student assistants assumed responsibility for the Korean materials. In 2005, the Seminar of East Asian Studies was dissolved into the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the Institute of Japanese



[Photograph 4] The Library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abeckstr. 7



[Photograph 5] Korean books in them temporary library building

Studies and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which moved to new locations around Dahlem in Berlin. The holdings of the library of the former Seminar of East Asian Studies were divided and installed at the respective locations.

Under the auspices of Prof. Lee, the Korean Studies library became part of the library integration project known as “24 in 1”, which began in 2007 and aimed at integrating 24 departmental libraries from five departments at Freie Universität into a single new library building with a joint classification system. From 2008 to 2015, the collection was formally and physically integrated into the Department Library of Education and Psychology, together with the libraries of Japanese Studies and Chinese Studies.

During the project phase, Dr. Carolin Dunkel was recruited for the cataloging and subject indexing of Korean Studies

materials. Thanks to the generous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collection was expanded significantly. Since 2007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library has also become a Window on Korea-network library.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 donated DVDs to support and enhance the research areas of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LTI now LTI Korea) provided assistance with journals.

In the middle of 2013, Dr. Carolin Dunkel left the project and Jasmin Kreutzberg, student assistant for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managed the Korean materials until October 2013 when a part-time librarian was employed. In January 2014 the part-time librarian began work as the first full-time librarian for the Korean Studies library. Since then, 50 percent of the position has been financed by the Korea Foundation. In 2014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library became



[Photograph 6] Supporters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Freie Universität Berlin

a member of the HUB Library program offered by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Korea. As of 2015,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Freie Universität is exchanging materials on law with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April 20, 2015 the new Campus Library for Sciences, Cultural Studies, Education,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and Psychology was finally opened.

## 2.2 The new home – introduction to the “Campusbibliothek”



[Photograph 7] Campusbibliothek main entrance

- Name of the library – Campusbibliothek Natur-, Kultur- und Bildungswissenschaften, Mathematik, Informatik und Psychologie  
*Campus Library for Sciences, Cultural Studies, Education,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and Psychology*
- Website – <http://www.fu-berlin.de/sites/campusbib/index.html>
- Year of opening – 2015
- Head of Library – Martin Lee
- Opening hours – Monday to Friday 9 a.m. – 10 p.m.  
Saturday + Sunday 10 a.m. – 8 p.m.

The “Campusbibliothek” provides about one million books in open-access shelving, with contents stemming from the 24 former institute and departmental libraries now classified under the integrative German Regensburger Verbund classification (RVK). “Integrative” in this case means that the books were merged by topics rather than by institute library holdings, differing considerably in this way from the set-up in the former libraries.



[Photograph 8] The new building



[Photograph 9] The restructured building

The newly built three-story library building contains material for the subject clusters Archaeologies and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East Asian Studies, Oriental Studies, Natural Sciences and Mathematics, while in the adjunct six-story restructured former building of the Department Library of Education and Psychology are located the subjects Education Studies, Psychology, and Religious Studies, as well as interdisciplinary journals. Both buildings are connected, and there is no need to cross safeguard gates in between.

The library offers about 950 working spaces, including reading desks and 12 group study rooms. Special rooms, such as the parent-child room, the room for visually impaired users or the multi-functional room, and carrels for exam candidates and guest researchers are also available.



[Photograph 10] Self-check-out

Library users who live in Berlin or Brandenburg can borrow volumes which are not designated for reference only (red bar on the book tag) in lin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terms of use of the library. The range of users is diverse and not limited to those with university affiliation.

## 2.3 Where and how to find the Korean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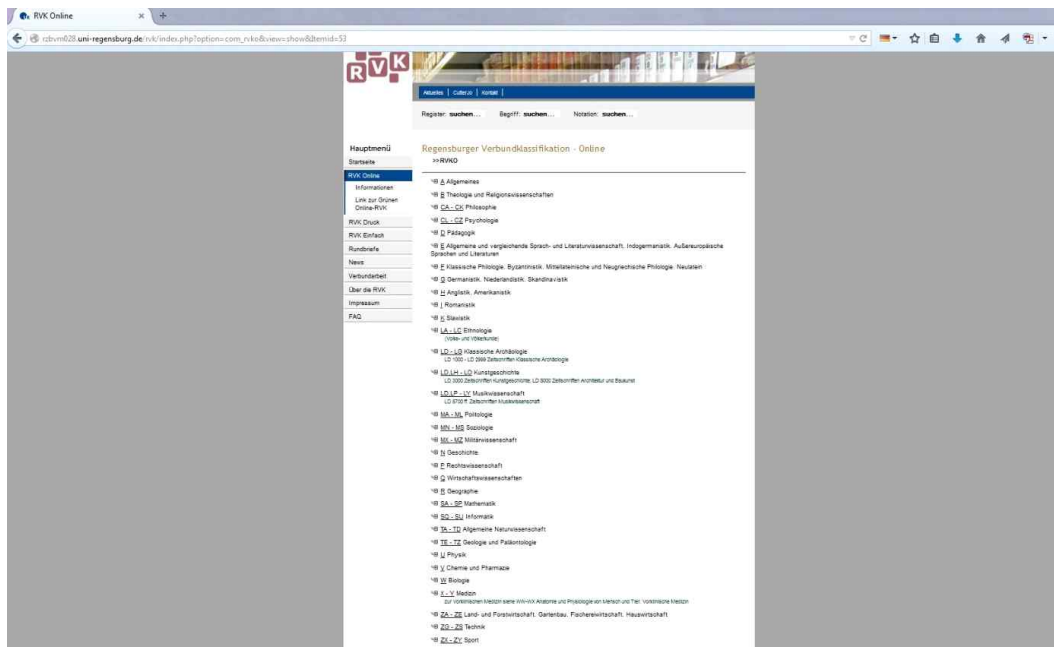
### 2.3.1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location marks

When it was decided that the Korean Studies materials would also be part of the “24 in 1” project, the old classification organized by subject first and then by order of accession – called the “*numerus-currens*” method in German – was retired and the Regensburger Verbundklassifikation (RVK), a shelf classification scheme that organizes all types of sciences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ore subjects of German universities, was

introduced. By now, all materials with a Korea-related topic have been classified under an RVK subject heading. Since the RVK is not optimized for Area Studies, it was decided to use additional “local area marks” (“Lokalkennzeichen”), so that all materials belonging to the Seminar of East Asian Studies could be gathered under the three different local area marks of Korea, Japan, and China. Books that feature all three countries are placed under the local research area which they prioritize. If there is no special focus in the book, it is put into the general stock without a location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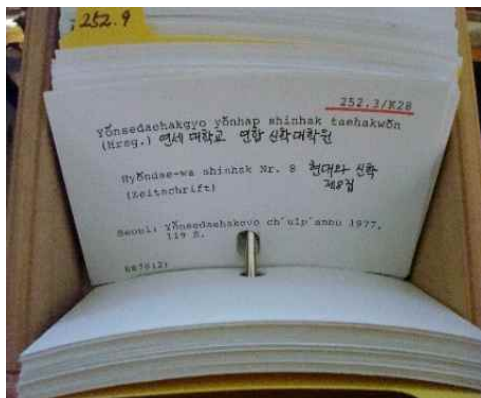
[Photograph 11] Location mark plus RVK notation



[Screenshot 1] Online Version of the Regensburger Verbundklassifikation:  
[http://rzsvm028.uni-regensburg.de/rvk/index.php?option=com\\_rvko&view=show&Itemid=53](http://rzsvm028.uni-regensburg.de/rvk/index.php?option=com_rvko&view=show&Itemid=53)



## 2.3.2 Catalogues



[Photograph 12]  
old card index cata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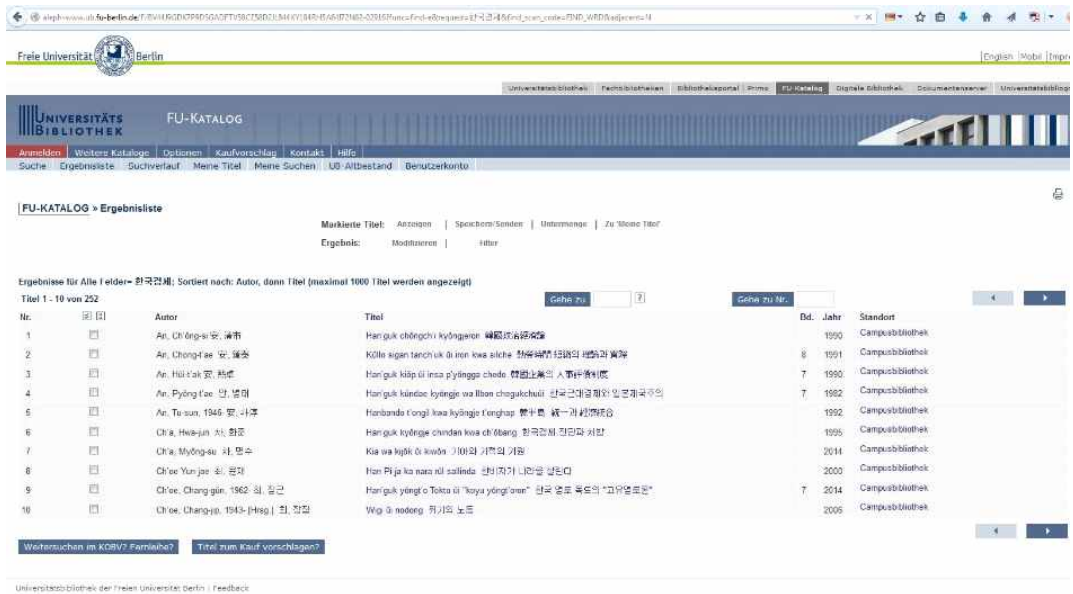
Before 2006 there were two ways to find books: 1.) search through the card index and 2.) look in the shelves. There was no librarian for the Korea collection and researchers and student assistants took care of the collection themselves.

The electronic cataloging of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on the university-owned OPAC system started in 2006. At the same time, it became possible to catalog in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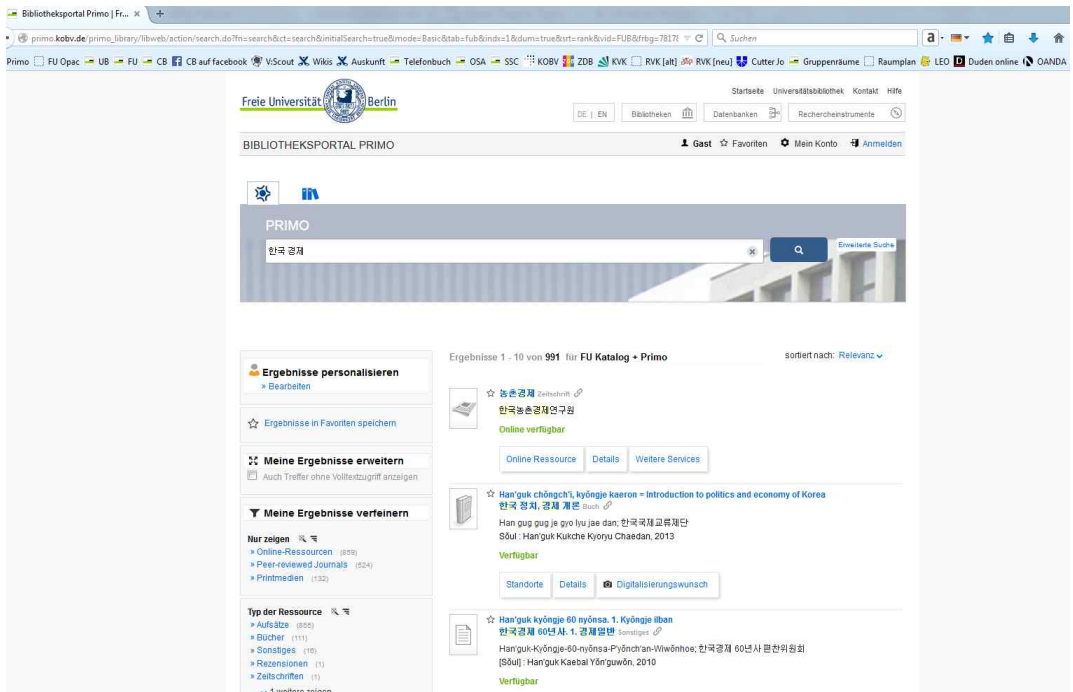
original Korean language. Therefore, books can now be found either in transcription with and without diacritical signs or in the original language (Hangul, Hanja). For the Korean language, the McCune-Reischauer transcription system was and still is in use. To support researchers and students in finding their desired books, the librarians of Korean Studies, Japanese Studies and Chinese Studies created a flyer with instructions on how to use the transcription of East Asian languages in the electronic catalogues.

However, since 2014 there has been a new trend in German-speaking countries towards a syllabic transliteration of Korean, aiming at an automatic transfer of Hangul and Hanja into Romanized letters. This unfortunately causes considerable inconvenience, since a syllabic search results in multiple findings and also numerous results in Chinese. Therefore, the librarians of the East Asian Studies departments took the initiative to organize a meeting of all German-speaking librarians in order to refine the new regulations and set up more practicable guidelines for the transcription of original language material (date pending, hopefully during 2016).

By the end of this year, the “old” FU OPAC will be replaced by a discovery system called Primo.



[Screenshot 2] OPAC search



[Screenshot 3] Primo search

### 3. Behind the scenes

It has been a long voyage, and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In particular, alongside the everyday work as a Korean Studies librarian – that is to say the management of the Korean Studies materials by making acquisitions, cataloging, classifying, and answering user requests – the librarian is involved in numerous committee efforts with other librarians plus additional work routines.

Currently a great number of changes are taking place. With the new library building, the terms of use changed as well as the course of business. Furthermore, last year (2015) the rules for cataloging changed from the RAK that had been used in Germany and Austria for the last 46 years to RDA. Furthermore, in summer of this year the library system will change from Aleph 22 to ALMA (both systems by ExLibris), which means a transfer from MAB2-format to MARC-format. The new cloud-based cataloging is considered a considerable challenge in many ways, not least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data in original languages.

Nevertheless, thanks to the continuous and generous support from organizations in Korea, the Korean Studies collection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has been able to grow considerably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visible as one of the larger Korean Studies libraries in Germany.

We will continue to work hard at developing the holdings and services of the Korean Studies library even further.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  
제 15 호 (2016년 6월)

2016년 6월 일 인쇄  
2016년 6월 일 발행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화 : (02)590-6327

팩스 : (02)590-6329

인 쇄 : (주)계문사(02-725-5216)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15 (June 2016)**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daero 201, Seocho-gu,  
Seoul, Korea

Tel: 82-2-590-6327

Fax: 82-2-590-6329

[www.nl.go.kr](http://www.nl.go.kr)

---

비 매 품